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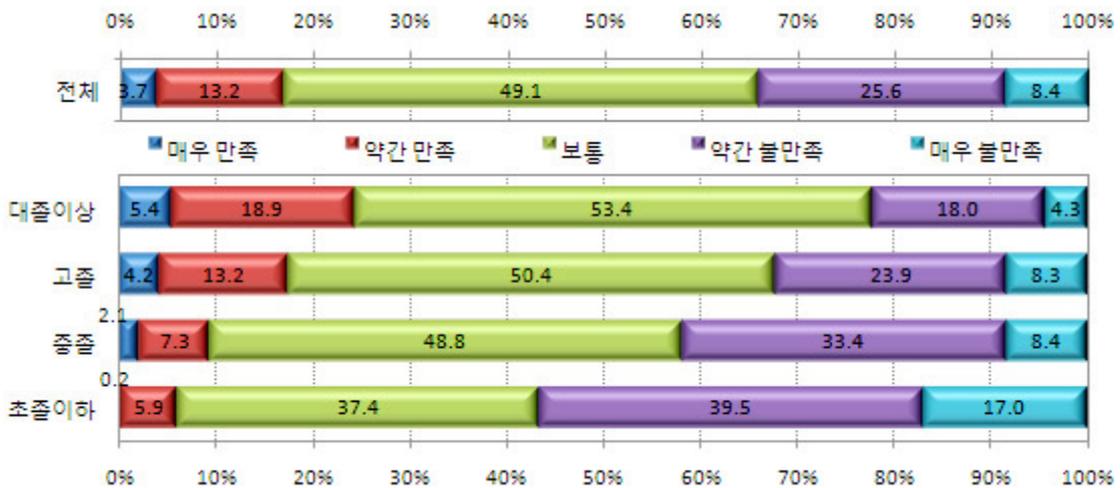
1. 사회 참여 부문
2. 문화와 여가 부문
3. 복지 부문
4. 소득과 소비 부문
5. 노동 부문
6. 지역 부문
7. 삶의 질 만족도 부문

1 사회 참여 부문

1.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군산시민의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은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66.0%

- 군산시민의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은 「보통」 49.1%, 「약간 불만족」 25.6%, 「약간 만족」 13.2% 순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66.0%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표 16]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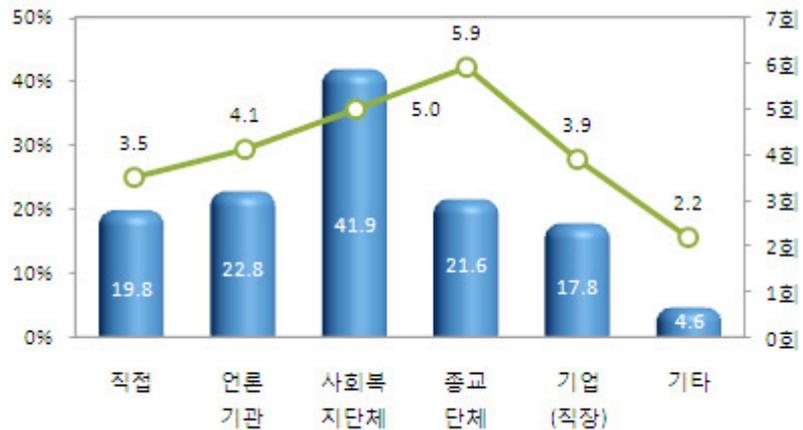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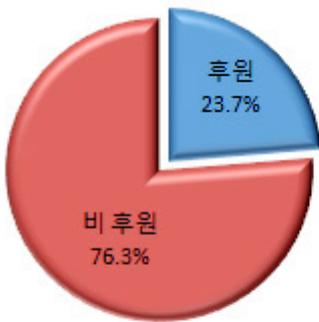
(단위 : %)

	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전체	100.0	3.7	13.2	49.1	25.6	8.4
남자	100.0	4.0	13.4	49.6	24.6	8.5
여자	100.0	3.4	13.0	48.5	26.7	8.4
15 - 19세	100.0	7.6	14.5	59.5	15.3	3.1
20 - 29세	100.0	2.8	16.3	53.4	20.9	6.5
30 - 39세	100.0	4.4	16.0	50.3	22.2	7.1
40 - 49세	100.0	4.5	14.6	47.4	24.8	8.7
50 - 59세	100.0	4.1	12.3	51.5	24.7	7.4
60세 이상	100.0	1.1	6.6	39.9	38.5	13.9
65세 이상	100.0	0.8	6.3	37.3	42.5	13.0
초졸이하	100.0	0.2	5.9	37.4	39.5	17.0
중졸	100.0	2.1	7.3	48.8	33.4	8.4
고졸	100.0	4.2	13.2	50.4	23.9	8.3
대졸이상	100.0	5.4	18.9	53.4	18.0	4.3

2. 후원금(기부금)

1년간 후원금(기부금)을 낸 경험이 있는 군산시민은 23.7%로 평균 후원 횟수는 5.8회

- 후원금(기부금)을 내는 방법으로는, 「사회복지단체를 통한 후원」이 후원경험이 있는 군산시민 중 41.9%로 가장 많고, 1년간 사회복지단체를 통한 평균 후원 횟수는 5.0회로 나타남
- 평균 후원 횟수가 가장 많은 방법은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으로 5.9회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후원금(기부금)을 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7] 후원금(기부금) - 복수응답

(단위 : %, 회)

	계	#후원	소계	대상자에						비후원
				계 직접	언론기관을 통해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종교단체를 통해	기업(직장)을 통해	기타	
전 체 #(후원횟수)	100.0 (1.4)	23.7 (5.8)	100.0 (5.8)	19.8 (3.5)	22.8 (4.1)	41.9 (5.0)	21.6 (5.9)	17.8 (3.9)	4.6 (2.2)	76.3 (-)
초 졸 이 하	100.0	7.8	100.0	13.6	16.1	43.3	28.8	11.2	3.0	92.2
중 졸	100.0	17.8	100.0	9.9	25.3	54.2	19.1	12.6	4.9	82.2
고 졸	100.0	23.1	100.0	16.2	20.9	43.3	19.0	18.5	2.8	76.9
대 졸 이 상	100.0	34.0	100.0	24.9	24.5	38.6	23.0	18.9	6.0	66.0
100만원미만	100.0	14.0	100.0	20.5	25.4	39.0	18.8	6.6	6.9	86.0
100-200만원	100.0	24.8	100.0	18.5	24.3	40.3	19.0	17.1	4.7	75.2
200-300만원	100.0	26.9	100.0	20.3	19.3	38.0	29.3	21.9	5.6	73.1
300-400만원	100.0	31.6	100.0	16.1	14.8	64.1	12.8	10.6	2.9	68.4
400-500만원	100.0	42.7	100.0	25.2	21.8	41.5	24.2	31.8	-	57.3
500-600만원	100.0	53.1	100.0	23.8	23.7	38.9	20.6	40.6	-	46.9
600만원이상	100.0	43.1	100.0	18.2	32.1	46.8	22.7	20.8	3.3	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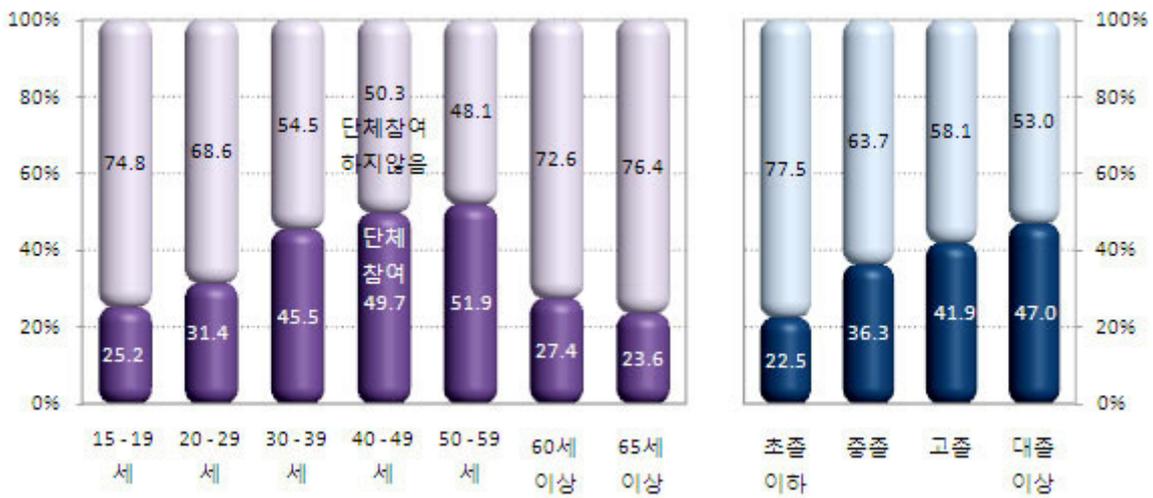
후원 : 1년간 후원(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

후원횟수 : 1년간 평균 후원(기부) 횟수

3. 단체참여

군산시민의 39.7%는 지난 1년간(2008. 7 ~ 2009. 6) 단체에 참여하였으며, 주로 활동한 단체는 「친목 및 사교단체」가 52.9%로 가장 많음

- 10대가 주로 참여한 단체는 「종교단체」 36.3%, 「친목 및 사교단체」 27.2%, 「시민사회단체」 21.4% 순이며, 나머지 연령대가 주로 참여한 단체는 모두 「친목 및 사교단체」가 가장 많음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단체 활동 참여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남



[표 18] 단체참여 - 주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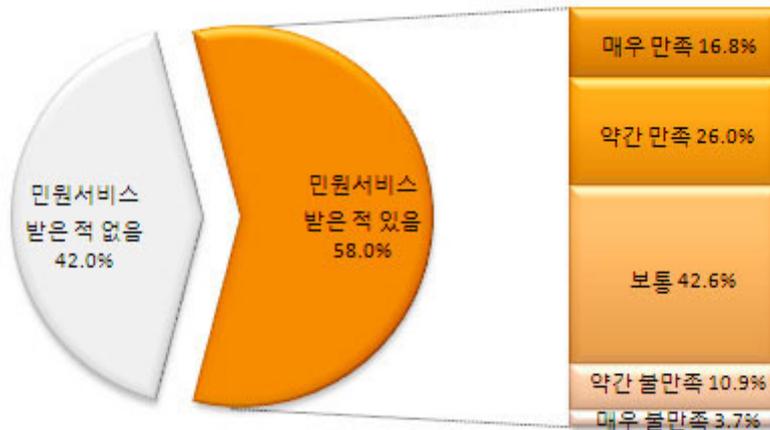
(단위 : %)

	계	참여	단체										참여하지 않음
			소계	친목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 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기타		
전체	100.0	39.7	100.0	52.9	25.4	11.4	6.5	2.1	1.2	0.5	-	60.3	
남자	100.0	41.2	100.0	55.1	18.5	14.4	6.2	2.5	2.3	1.0	-	58.8	
여자	100.0	38.2	100.0	50.5	32.9	8.1	6.9	1.6	-	-	-	61.8	
15-19세	100.0	25.2	100.0	27.2	36.3	9.1	21.3	6.1	-	-	-	74.8	
20-29세	100.0	31.4	100.0	45.3	33.2	12.5	3.6	1.9	1.6	1.9	-	68.6	
30-39세	100.0	45.5	100.0	51.3	16.0	21.9	6.6	1.1	3.1	-	-	54.5	
40-49세	100.0	49.7	100.0	59.2	20.5	10.2	5.4	3.4	1.2	-	-	50.3	
50-59세	100.0	51.9	100.0	63.4	22.0	6.2	6.7	1.7	-	-	-	48.1	
60세 이상	100.0	27.4	100.0	45.4	43.0	3.9	5.6	0.4	-	1.8	-	72.6	
65세 이상	100.0	23.6	100.0	40.6	48.4	3.6	6.0	0.7	-	0.7	-	76.4	
초졸 이하	100.0	22.5	100.0	50.2	45.5	3.0	1.2	-	-	-	-	77.5	
중졸	100.0	36.3	100.0	63.6	20.4	6.0	7.9	0.8	1.3	-	-	63.7	
고졸	100.0	41.9	100.0	55.0	20.2	12.7	9.1	0.6	1.5	0.9	-	58.1	
대졸 이상	100.0	47.0	100.0	48.8	26.8	13.6	5.0	4.2	1.2	0.4	-	53.0	

4. 민원서비스 만족도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보통」이 42.6%로 가장 많고, 「보통」이상은 85.5%

-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불만족」(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초졸이하의 교육정도인 경우, 「만족」이 64.5%, 「불만족」이 6.5%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대졸이상의 교육정도인 경우는 「만족」이 38.3%, 「불만족」이 17.5%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나타남



[표 19] 민원서비스 만족도

(단위 : %)

구분	계	민원 서비스 받은적 있음	민원 서비스 받은적 있음								민원 서비스 받은적 없음
			소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100.0	58.0	100.0	42.8	16.8	26.0	42.6	14.5	10.9	3.7	42.0
남자	100.0	61.3	100.0	41.7	15.0	26.7	43.2	15.1	10.6	4.5	38.7
여자	100.0	54.7	100.0	44.1	18.8	25.2	42.0	13.9	11.2	2.7	45.3
15 - 19세	100.0	23.7	100.0	29.1	12.9	16.2	58.0	12.9	12.9	-	76.3
20 - 29세	100.0	51.6	100.0	26.3	9.8	16.5	48.5	25.2	15.7	9.5	48.4
30 - 39세	100.0	67.4	100.0	32.6	8.7	23.9	47.7	19.7	16.6	3.1	32.6
40 - 49세	100.0	68.7	100.0	42.9	15.9	27.0	45.0	12.2	8.8	3.3	31.3
50 - 59세	100.0	63.3	100.0	49.9	19.7	30.2	38.2	12.0	8.7	3.3	36.7
60세 이상	100.0	53.0	100.0	64.8	31.9	32.9	30.0	5.1	4.0	1.2	47.0
65세 이상	100.0	51.5	100.0	69.8	36.2	33.6	25.7	4.5	3.2	1.2	48.5
초졸이하	100.0	49.2	100.0	64.5	30.0	34.5	29.1	6.5	4.0	2.4	50.8
중졸	100.0	53.5	100.0	46.4	21.6	24.9	44.9	8.7	6.1	2.5	46.5
고졸	100.0	57.0	100.0	37.9	14.9	22.9	45.7	16.4	12.0	4.5	43.0
대졸이상	100.0	64.8	100.0	38.3	12.3	26.0	44.2	17.5	13.7	3.7	35.2

5. 민원서비스 불만 이유(민원서비스 불만인 사람)

민원서비스 불만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47.0%, 「불친절하다」 45.3%, 「시간이 오래 걸린다」 42.8% 순으로 나타남

- 민원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불친절하다」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직업은 ‘서비스판매직’으로 55.6%,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가 가장 높은 직업은 ‘사무직’ 78.5%,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기능노무직’ 54.2%, 「공정하지 못하다」는 ‘농어업직’ 58.7%로 나타남



[표 20] 민원서비스 불만 이유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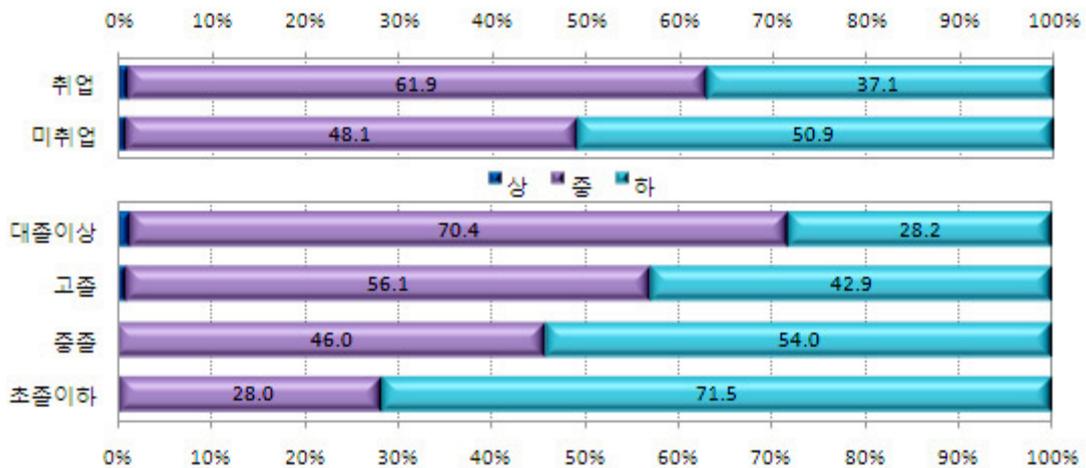
(단위 : %)

	계	불친절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공정하지 못하다	업무처리가 미숙하다	편의시설 등이 미비하다	기타
전 체	100.0	45.3	42.8	47.0	10.2	20.2	3.5	1.8
남 자	100.0	41.9	42.4	44.9	9.0	19.8	1.2	-
여 자	100.0	49.5	43.2	49.5	11.8	20.6	6.4	4.0
15 - 19 세	100.0	24.9	50.1	74.8	-	25.2	-	-
20 - 29 세	100.0	57.3	42.9	40.9	8.0	17.3	4.0	2.8
30 - 39 세	100.0	48.7	43.0	52.7	9.3	19.9	1.7	3.4
40 - 49 세	100.0	39.7	50.0	36.5	10.5	17.1	9.9	-
50 - 59 세	100.0	31.8	38.7	54.6	15.6	33.3	-	-
60 세 이 상	100.0	36.5	25.3	45.7	15.6	11.6	-	-
65 세 이 상	100.0	27.5	20.0	42.9	26.0	8.2	-	-
전 문 관 리	100.0	38.6	43.1	48.0	15.7	22.0	4.1	4.1
사 무	100.0	41.8	78.5	29.5	10.5	-	-	-
서 비 스 판 매	100.0	55.6	48.2	30.7	6.8	40.6	9.7	-
농 어 업	100.0	31.7	58.7	41.3	58.7	27.0	-	-
기 능 노 무	100.0	44.2	37.2	54.2	13.0	24.4	2.3	-

6. 계층의식

군산시민의 55.2%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43.9%는 「하」, 0.9%는 「상」으로 생각

-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취업자보다 미취업자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혼인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각 58.6%, 59.2%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으나, 사별인 경우와 이혼한 경우 각각 73.8%, 76.8%로 지위를 「하」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취업자의 37.1%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로 생각하는 반면, 미취업자는 50.9%가 「하」로 생각



[표 21] 계층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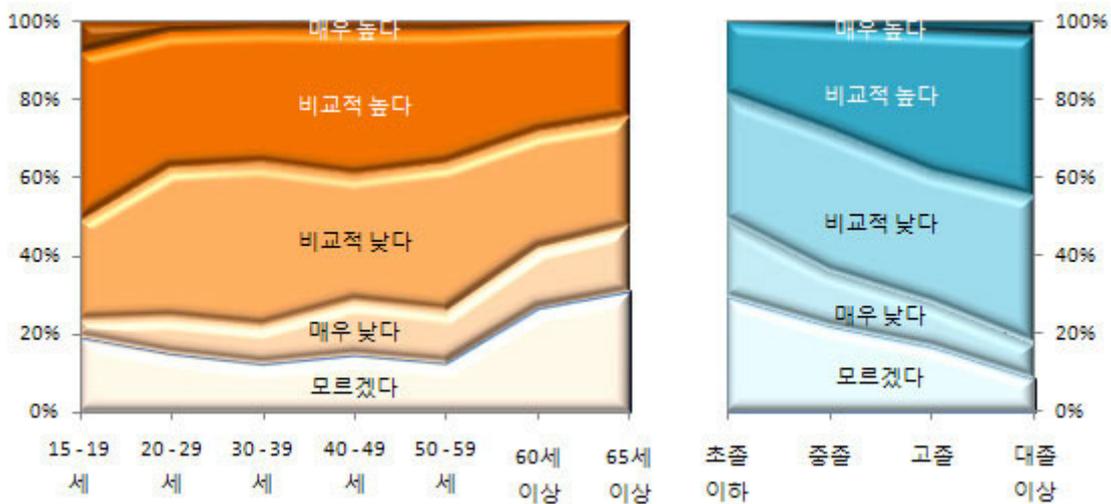
(단위 : %)

	계	상			중			하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전 체	100.0	0.9	0.5	0.5	55.2	20.0	35.1	43.9	25.7	18.2
초 졸 이 하	100.0	0.5	-	0.5	28.0	6.6	21.4	71.5	31.9	39.6
중 졸	100.0	-	-	-	46.0	16.2	29.8	54.0	32.4	21.6
고 졸	100.0	1.0	0.5	0.6	56.1	17.3	38.9	42.9	25.8	17.1
대 졸 이 상	100.0	1.4	0.9	0.6	70.4	30.6	39.8	28.2	20.3	7.9
미 혼	100.0	1.3	0.9	0.5	58.6	20.8	37.7	40.1	25.5	14.6
배 우 자 있 음	100.0	0.8	0.4	0.5	59.2	22.2	36.9	40.0	24.7	15.3
사 별	100.0	0.9	-	0.9	25.4	6.6	18.8	73.8	29.0	44.8
이 혼	100.0	-	-	-	23.2	3.6	19.6	76.8	39.2	37.6
취 업	100.0	1.0	0.5	0.5	61.9	22.9	38.9	37.1	24.7	12.4
미 취 업	100.0	0.9	0.4	0.5	48.1	17.0	31.2	50.9	26.7	24.2

7. 본인세대 계층이동

사회에서 본인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높다」 36.7%, 본인에 대한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매우높다+비교적높다) 고 응답
- 본인에 대한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표 22] 본인세대 계층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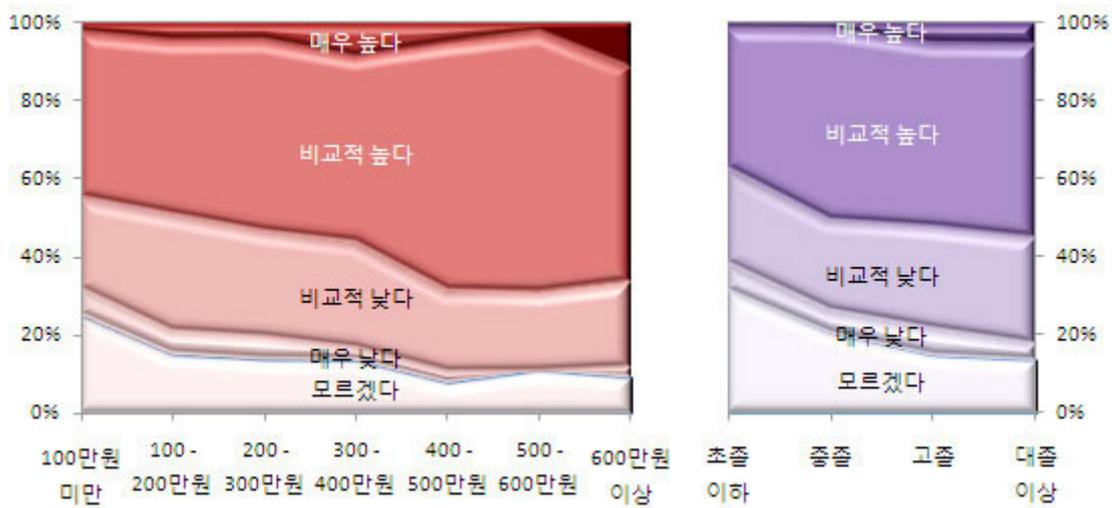
(단위 : %)

	계	높다			낮다			모르겠다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			
전 체	100.0	36.7	2.8	33.9	46.8	34.7	12.0	16.5
15 - 19 세	100.0	51.1	8.4	42.8	29.8	25.2	4.6	19.1
20 - 29 세	100.0	37.5	3.0	34.5	47.7	38.1	9.6	14.8
30 - 39 세	100.0	36.4	2.3	34.1	51.4	41.4	10.0	12.2
40 - 49 세	100.0	39.4	2.5	36.8	46.1	32.0	14.1	14.5
50 - 59 세	100.0	36.3	2.5	33.8	51.3	37.6	13.6	12.4
60 세 이상	100.0	28.4	1.4	27.0	45.3	29.5	15.7	26.4
65 세 이상	100.0	24.5	0.8	23.7	44.8	27.8	17.0	30.7
초 졸 이 하	100.0	19.1	0.4	18.8	51.5	31.7	19.8	29.4
중 졸	100.0	28.6	1.8	26.8	49.5	35.7	13.9	21.9
고 졸	100.0	39.1	3.0	36.1	44.3	33.3	11.0	16.6
대 졸 이상	100.0	45.5	4.1	41.4	46.1	37.4	8.8	8.4
계층의식-상	100.0	79.4	18.4	61.0	5.3	5.3	-	15.3
계층의식-중	100.0	46.5	3.5	43.1	40.8	34.1	6.7	12.7
계층의식-하	100.0	23.4	1.6	21.8	55.2	36.2	19.1	21.3

8. 다음세대 계층이동

사회에서 다음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높다」 50.8%이며, 본인의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다음세대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다음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남
- 본인의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다음세대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표 23] 다음세대 계층이동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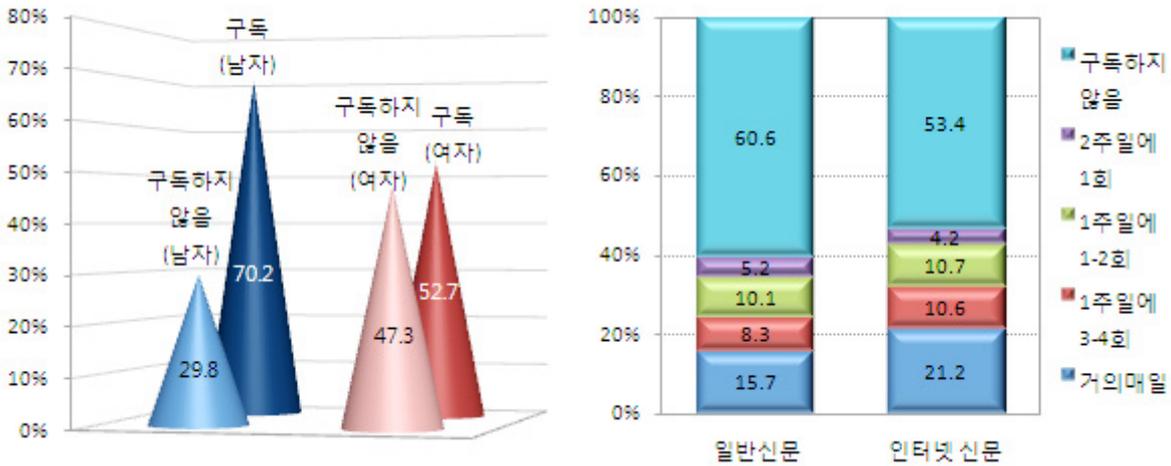
	계	높다			낮다			모르겠다
		높다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낮다	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	
전 체	100.0	50.8	4.7	46.2	31.7	25.9	5.8	17.4
초 졸 이 하	100.0	37.5	1.7	35.8	31.5	24.5	7.0	31.0
중 졸	100.0	50.9	1.9	48.9	29.1	23.2	5.9	20.0
고 졸	100.0	52.6	5.7	46.8	33.0	26.2	6.8	14.4
대 졸 이 상	100.0	55.4	5.9	49.5	31.4	27.2	4.2	13.2
100만원미만	100.0	44.9	2.8	42.1	30.3	23.3	6.9	24.8
100-200만원	100.0	49.3	5.0	44.4	35.8	29.8	6.1	14.8
200-300만원	100.0	53.6	4.8	48.8	32.9	27.0	6.0	13.4
300-400만원	100.0	56.5	9.0	47.4	30.2	26.9	3.3	13.3
400-500만원	100.0	68.7	5.5	63.2	23.7	20.8	2.9	7.6
500-600만원	100.0	69.1	2.8	66.3	20.2	20.2	-	10.7
600만원이상	100.0	66.2	11.9	54.3	24.8	21.9	2.9	8.9
계층의식-상	100.0	63.4	16.9	46.5	17.8	12.5	5.3	18.8
계층의식-중	100.0	60.0	5.7	54.2	26.1	22.5	3.7	13.9
계층의식-하	100.0	39.0	3.0	36.0	39.1	30.5	8.6	21.9

2 문화와 여가 부문

9. 신문

일반신문을 구독하는 군산시민은 39.4%, 인터넷신문을 구독하는 군산시민은 46.6%

- 남자 중 신문을 「구독」 하는 사람은 70.2%, 여자 중에서 신문을 「구독」 하는 사람은 52.7%로 남자가 신문을 더 많이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신문을 가장 많이 「구독」 하는 연령대는 40대, 인터넷신문을 가장 많이 「구독」 하는 연령대는 20대로 나타남



[표 24] 신문

(단위 : %)

	계	구독	구독하지 않음	형태	소계	구독					구독하지 않음	
						거의 매일	1주일에 3-4회	1주일에 1-2회	2주일에 1회	구독하지 않음		
전 체	100.0	61.5	38.5	전 체	일반	100.0	39.4	15.7	8.3	10.1	5.2	60.6
					인터넷	100.0	46.6	21.2	10.6	10.7	4.2	53.4
남 자	100.0	70.2	29.8	15-19세	일반	100.0	28.3	6.1	4.6	9.9	7.6	71.7
여 자	100.0	52.7	47.3		인터넷	100.0	69.5	25.2	17.6	16.8	9.9	30.5
15-19세	100.0	75.6	24.4	20-29세	일반	100.0	37.1	9.2	8.2	10.9	8.9	62.9
					인터넷	100.0	78.7	35.9	18.2	19.3	5.2	21.3
20-29세	100.0	81.6	18.4	30-39세	일반	100.0	51.1	20.0	11.2	14.0	5.9	48.9
					인터넷	100.0	70.6	33.3	14.0	16.8	6.5	29.4
30-39세	100.0	81.4	18.6	40-49세	일반	100.0	52.8	23.7	9.5	13.4	6.2	47.2
					인터넷	100.0	48.2	24.5	11.7	8.8	3.2	51.8
40-49세	100.0	69.7	30.3	50-59세	일반	100.0	41.0	18.2	11.6	8.5	2.8	59.0
					인터넷	100.0	23.1	9.2	5.1	5.7	3.1	76.9
50-59세	100.0	48.9	51.1	60세이상	일반	100.0	19.6	11.0	3.4	3.9	1.3	80.4
					인터넷	100.0	4.0	1.5	1.4	0.7	0.4	96.0
60세이상	100.0	21.4	78.6	65세이상	일반	100.0	13.9	7.5	2.1	3.2	1.1	86.1
					인터넷	100.0	1.7	1.0	0.2	0.2	0.3	98.3
취 업	100.0	71.5	28.5									
미 취 업	100.0	51.0	49.0									

10. TV 시청

군산시민이 가장 많이 TV를 시청하는 날은 일요일·공휴일로 88.3%, 이 날의 1인당 하루 평균 시청시간은 3.9시간이며, TV시청자는 94.3%, 미시청자는 5.7%

-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TV를 시청하는 비율은 94.4%, 94.2%로 많은 차이가 없으나, 하루 평균 시청시간은 2.6시간, 3.4시간으로 차이가 나타남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이 92.5%, 하루 평균 시청시간 2.3시간으로 TV를 가장 적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업직이 100%, 3.1시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표 25] TV 시청 - 복수응답

(단위 :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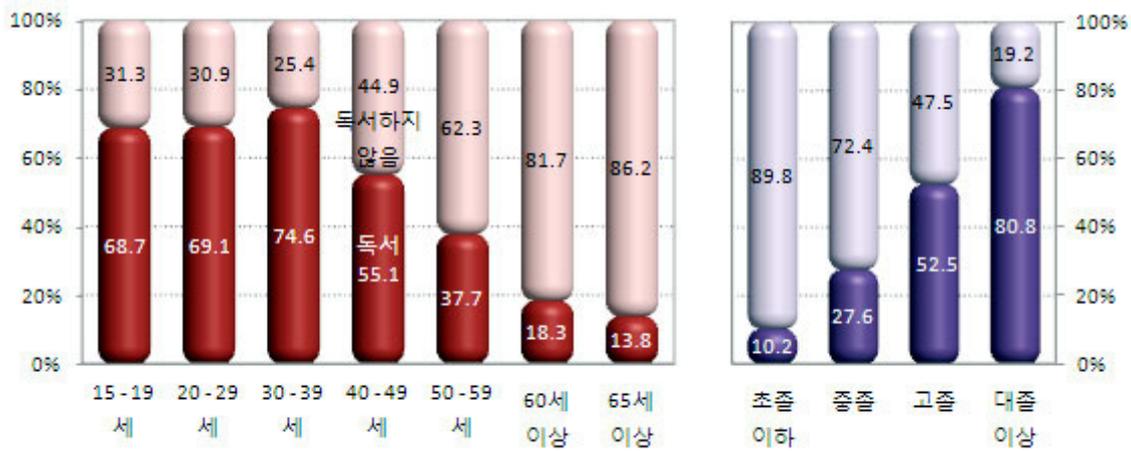
	계	#(시청 시간)	시청	#(시청 시간)	소계	평일	#(시청 시간)	토요일	#(시청 시간)	일요일·공휴일	#(시청 시간)	시청하지 않음
전 체	100.0	(2.8)	94.3	(3.0)	100.0	87.7	(3.0)	83.6	(3.7)	88.3	(3.9)	5.7
15 - 19세	100.0	(2.1)	92.4	(2.3)	100.0	66.4	(2.7)	77.9	(3.4)	89.3	(3.7)	7.6
20 - 29세	100.0	(2.6)	90.3	(2.9)	100.0	82.0	(2.9)	80.2	(3.9)	85.2	(4.1)	9.7
30 - 39세	100.0	(2.7)	95.1	(2.8)	100.0	89.4	(2.8)	84.0	(3.6)	87.6	(4.0)	4.9
40 - 49세	100.0	(2.5)	95.6	(2.6)	100.0	89.0	(2.6)	79.4	(3.3)	87.7	(3.6)	4.4
50 - 59세	100.0	(2.8)	93.9	(2.9)	100.0	91.6	(2.9)	85.8	(3.5)	87.5	(3.8)	6.1
60세 이상	100.0	(3.7)	96.5	(3.9)	100.0	94.9	(3.9)	90.7	(4.2)	92.6	(4.3)	3.5
65세 이상	100.0	(3.8)	96.0	(4.0)	100.0	93.9	(4.0)	90.9	(4.3)	92.3	(4.4)	4.0
취업	100.0	(2.4)	94.4	(2.6)	100.0	88.1	(2.5)	82.8	(3.4)	87.5	(3.7)	5.8
미취업	100.0	(3.2)	94.2	(3.4)	100.0	87.3	(3.5)	84.4	(4.0)	89.1	(4.2)	5.3
전문관리	100.0	(2.1)	92.5	(2.3)	100.0	84.8	(2.2)	81.9	(3.1)	88.2	(3.4)	7.5
사무	100.0	(2.3)	95.9	(2.4)	100.0	85.6	(2.2)	86.3	(3.5)	91.9	(3.8)	4.1
서비스판매	100.0	(2.5)	93.3	(2.6)	100.0	85.6	(2.7)	75.8	(3.3)	82.8	(3.7)	6.7
농어업	100.0	(3.1)	100.0	(3.1)	100.0	100.0	(3.0)	95.5	(3.3)	96.8	(3.6)	-
기능노무	100.0	(2.5)	94.3	(2.7)	100.0	89.3	(2.5)	84.3	(3.4)	87.4	(3.9)	5.7

시청시간 : 하루 평균 시청 시간

11. 독서

군산시의 1년간 독서 인구는 52.3%, 독서인구의 1년간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4.5권

- 독서 인구가 가장 많이 접한 서적의 종류는 「교양서적(종교,소설,시집 등)」으로 67.2%이며 1년간 1인당 평균 8.7권에 해당하고, 독서 인구가 가장 다독한 서적의 종류는 「기타서적(만화, 무협지 등)」으로 1년간 평균 21.8권으로 나타남
- 10대의 경우 80.0%를 차지하는 「교양서적」 다음으로 「기타서적(만화, 무협지 등)」을 접하는 비율이 38.9%로 높으나, 나머지 모든 연령대의 경우 「교양서적」 다음으로 「잡지류」를 접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 독서 - 복수응답

(단위 : %, 권)

	계	독서함	소계	잡지류	교양서적	직업관련서적	생활취미정보서적	기타서적	독서하지 않음
전체 # (독서권수)	100.0 (7.6)	52.3 (14.5)	100.0 (16.6)	41.6 (6.0)	67.2 (8.7)	32.0 (7.5)	14.2 (4.6)	14.3 (21.8)	47.7 (-)
남자	100.0	53.2	100.0	36.9	59.9	39.9	14.4	17.7	46.8
여자	100.0	51.3	100.0	46.6	74.9	23.6	14.0	10.7	48.7
15-19세	100.0	68.7	100.0	32.2	80.0	18.9	7.8	38.9	31.3
20-29세	100.0	69.1	100.0	43.4	70.2	37.3	11.6	18.2	30.9
30-39세	100.0	74.6	100.0	45.2	61.4	35.7	22.6	13.5	25.4
40-49세	100.0	55.1	100.0	45.7	63.1	42.6	15.2	9.2	44.9
50-59세	100.0	37.7	100.0	42.6	65.2	21.7	8.8	2.4	62.3
60세 이상	100.0	18.3	100.0	22.4	77.1	5.2	3.8	3.1	81.7
65세 이상	100.0	13.8	100.0	14.6	81.4	6.0	1.6	4.0	86.2
초졸 이하	100.0	10.2	100.0	14.1	79.6	3.1	4.8	3.2	89.8
중졸	100.0	27.6	100.0	38.1	61.0	11.9	5.4	13.3	72.4
고졸	100.0	52.5	100.0	42.4	64.5	16.7	13.9	14.6	47.5
대졸 이상	100.0	80.8	100.0	43.2	69.0	46.4	16.0	14.9	19.2

독서권수 : 1년간 평균 독서 권수

12. 레저시설 이용

군산시의 1년간 레저시설 이용 인구는 62.1%로 1년간 평균 5.6회 이용

- 군산시민이 1년간 이용한 레저시설은 「관광명소」 69.9%, 「해수욕장」 37.6%, 「산림욕장(휴양림)」 35.6%, 「놀이공원」 27.7% 순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레저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여러 가지 레저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편이나 초졸이하의 경우, 레저시설 중 「관광명소」에 83.8%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레저시설 이용 - 복수응답

(단위 : %, 회)

	계	이용	소계	관광 명소	온천장 및스파	골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산림욕 휴양림	놀이공원	수영장	기타	이용하지않음
전 체 # (이용횟수)	100.0 (3.5)	62.1 (5.6)	100.0 (5.6)	69.9 (2.8)	20.7 (2.6)	2.4 (7.5)	7.0 (1.7)	37.6 (1.9)	35.6 (2.0)	27.7 (2.4)	14.8 (4.4)	0.3 (10.7)	37.9 (-)
초졸이하	100.0	32.7	100.0	83.8	11.0	-	-	10.9	9.7	7.1	1.6	-	67.3
중졸	100.0	43.1	100.0	73.7	19.8	-	2.1	25.2	30.6	10.2	2.3	0.7	56.9
고졸	100.0	65.2	100.0	61.8	17.4	1.7	6.6	37.1	41.3	26.0	11.9	0.7	34.8
대졸이상	100.0	79.5	100.0	73.3	25.6	3.9	9.8	45.6	36.9	36.5	22.3	-	20.5
100만원미만	100.0	46.6	100.0	71.5	16.4	0.6	4.3	27.9	26.0	18.8	9.3	0.6	53.4
100-200만원	100.0	63.7	100.0	66.8	20.6	1.1	7.0	43.7	35.4	31.5	16.4	-	36.3
200-300만원	100.0	74.0	100.0	65.9	18.8	2.1	4.5	38.3	41.6	30.5	16.6	0.3	26.0
300-400만원	100.0	66.1	100.0	83.9	22.7	3.2	8.0	31.8	34.8	29.1	15.0	1.3	33.9
400-500만원	100.0	85.1	100.0	65.3	26.1	12.2	18.9	60.5	51.6	29.4	15.5	-	14.9
500-600만원	100.0	93.6	100.0	82.5	42.1	9.1	20.6	43.4	48.5	41.1	25.9	-	6.4
600만원이상	100.0	85.2	100.0	78.8	33.1	5.5	14.0	31.8	35.3	28.0	19.5	-	14.8

이용 횟수 : 1년간 평균 이용 횟수

13.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

군산시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의 종류는 「영화」 77.0%

- 1년간 1인당 평균 「스포츠」 관람 ‘횟수’는 남자 3.8회, 여자 6.1회로 여자의 경우가 더 많으나, 「스포츠」 관람 ‘인구’는 남자 26.6%, 여자 12.1%로 남자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관람경험은 10대가 73.3%, 20대 55.9%, 30대 58.0%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경험이 많은 경향이 나타남



[표 28]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 복수응답

(단위 : %, 회)

	계	관람	소계	음악·연주회	연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하지 않음
전 체 # (관람횟수)	100.0 (2.7)	41.1 (6.5)	100.0 (6.5)	18.4 (2.2)	9.5 (1.6)	2.4 (3.7)	77.0 (5.4)	26.0 (2.2)	12.3 (2.0)	19.4 (4.5)	58.9 (-)
남 자 # (관람횟수)	100.0 (2.6)	41.1 (6.4)	100.0 (6.4)	15.2 (2.0)	7.3 (1.8)	1.8 (2.0)	76.6 (5.5)	22.1 (2.2)	10.5 (2.1)	26.6 (3.8)	58.9 (-)
여 자 # (관람횟수)	100.0 (2.7)	41.1 (6.6)	100.0 (6.6)	21.7 (2.3)	11.7 (1.5)	3.0 (4.7)	77.3 (5.3)	29.8 (2.1)	14.1 (1.9)	12.1 (6.1)	58.9 (-)
15 - 19 세	100.0	73.3	100.0	22.9	5.2	3.1	83.4	20.8	9.4	9.4	26.7
20 - 29 세	100.0	55.9	100.0	8.2	11.2	3.4	92.9	13.7	9.2	15.9	44.1
30 - 39 세	100.0	58.0	100.0	16.5	11.7	0.8	76.3	33.9	13.0	21.5	42.0
40 - 49 세	100.0	44.6	100.0	27.0	8.6	1.9	72.2	33.9	18.4	24.5	55.4
50 - 59 세	100.0	24.7	100.0	20.8	7.4	1.9	59.3	21.1	7.4	20.2	75.3
60 세 이상	100.0	8.7	100.0	22.6	8.9	9.3	38.0	27.2	13.7	30.5	91.3
65 세 이상	100.0	5.9	100.0	26.8	10.7	11.5	35.4	36.6	17.0	30.4	94.1

관람 횟수 : 1년간 평균 관람 횟수

14.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군산시민의 32.3%는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TV 및 비디오(DVD) 시청」을 하며 여가 활용

- 주된 여가활동 방법으로 「가사일」을 응답한 여자는 23.7%, 남자는 5.7%로 여가 시간에도 주로 「가사일」을 하는 응답자는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로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10대의 경우 응답률이 25.2%로 나타남



[표 29]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 주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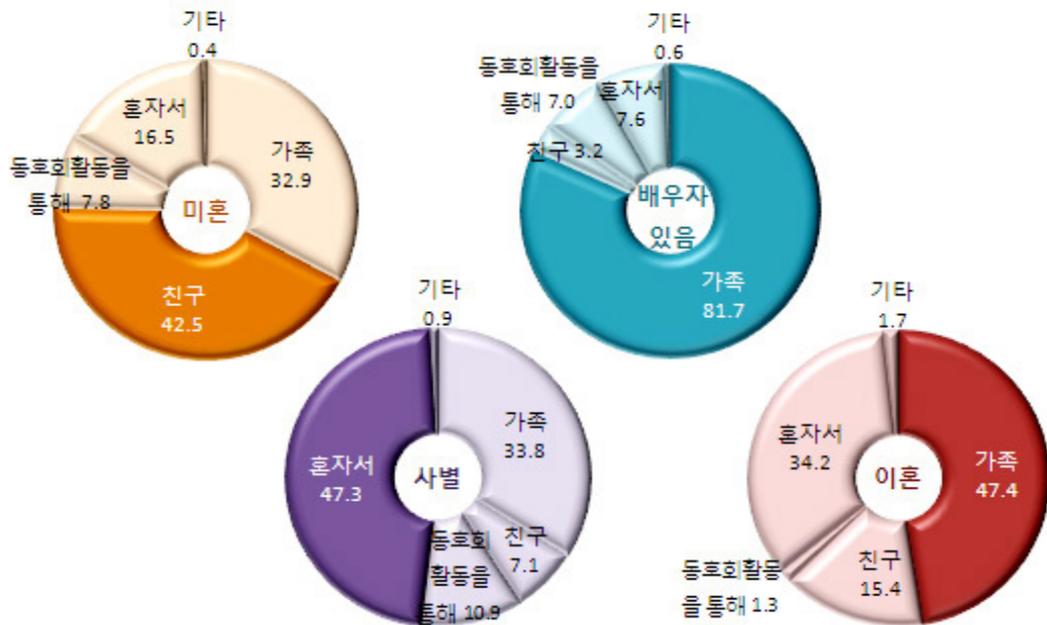
(단위 : %)

	계	TV 및 비디오(DVD)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게임, 인터넷 검색 등	창작적 취미
		자기계발	봉사활동	종교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일	기타
전 체	100.0	32.3 1.8	3.8 0.5	1.1 13.3	1.0 14.7	4.9 12.5	6.0 6.7	0.7 0.8
남 자	100.0	32.2 2.3	4.7 0.3	0.4 9.2	1.3 5.7	8.3 16.3	9.1 8.4	0.9 0.7
여 자	100.0	32.3 1.3	2.9 0.6	1.8 17.4	0.7 23.7	1.5 8.5	2.9 4.9	0.4 1.0
15 - 19 세	100.0	30.5 6.9	1.5 0.8	- 10.7	0.8 0.8	2.3 10.7	25.2 9.9	- -
20 - 29 세	100.0	25.5 3.3	1.0 -	2.7 9.1	1.1 10.6	6.6 10.0	13.7 15.6	0.6 0.4
30 - 39 세	100.0	29.9 2.7	7.0 0.7	2.0 9.6	1.4 15.9	6.5 11.0	6.8 4.8	1.1 0.5
40 - 49 세	100.0	28.7 0.3	5.0 -	0.8 13.9	1.1 19.6	7.9 13.1	1.4 5.3	1.1 1.7
50 - 59 세	100.0	32.7 0.8	5.7 1.4	0.5 14.1	1.4 18.7	3.7 15.4	- 4.1	0.4 1.0
60 세 이상	100.0	44.1 -	1.3 0.1	- 20.2	0.3 14.3	1.0 13.7	0.4 3.2	0.5 0.9
65 세 이상	100.0	45.6 -	1.0 0.2	- 21.3	0.4 13.7	1.2 12.9	- 2.4	0.5 0.8

15.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을 함께 하는 사람

군산시민이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을 함께 하는 사람은 「가족」 63.9%, 「친구」 14.1%, 「혼자서」 14.0%

- 가장 많이 여가활용을 함께 하는 사람은 미혼인 경우 「친구(연인 포함)」 42.5%,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이혼한 경우는 「가족」이 각각 81.7%, 47.4%로 가장 많았으며, 사별한 경우 「혼자서」가 47.3%로 나타남
- 「가족」을 가장 많이 응답한 연령대는 30,40대로 각각 79.2%, 76.7%이며, 「친구(연인 포함)」를 가장 많이 응답한 연령대는 10,20대 각각 39.7%, 38.1%로 나타남



[표 30]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을 함께 하는 사람

(단위 : %)

	계	가족	친구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혼자서	기타
전 체	100.0	63.9	14.1	7.4	14.0	0.6
15 - 19 세	100.0	46.5	39.7	3.1	10.7	-
20 - 29 세	100.0	41.0	38.1	7.7	13.1	-
30 - 39 세	100.0	79.2	10.2	5.2	4.9	0.5
40 - 49 세	100.0	76.7	5.3	6.4	10.5	1.1
50 - 59 세	100.0	66.1	4.8	11.9	16.3	0.8
60 세 이상	100.0	60.6	3.8	8.4	26.7	0.6
65 세 이상	100.0	57.2	2.6	9.0	30.3	0.9
미 혼	100.0	32.9	42.5	7.8	16.5	0.4
배 우 자 있 음	100.0	81.7	3.2	7.0	7.6	0.6
사 별	100.0	33.8	7.1	10.9	47.3	0.9
이 혼	100.0	47.4	15.4	1.3	34.2	1.7

16. 국내 관광여행

군산시민의 국내 관광 여행자는 1년간 평균 3.9회 여행하고, 그 중 「숙박여행」 경험자는 숙박여행을 2.4회, 「당일여행」 경험자는 당일여행을 3.5회 경험

- 군산시민의 58.0%는 1년간 국내 관광 여행 경험이 있으며, 그 중 「숙박여행」은 54.9%, 「당일여행」은 72.6%로 「당일여행」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관광여행 경험이 많은 연령대는 30대가 7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40대’ 64.8%, ‘20대’ 59.3%, ‘50대’ 55.3% 순으로 나타남



[표 31] 국내 관광여행 - 복수응답

(단위 : %, 회, 일)

구분	계	#(여행 횟수)	경험 있음 (1년간)		소계	숙박 여행	#(여행 횟수)		당일 여행	경험 없음 (1년간)	
			#(여행 횟수)	소계			#(숙박 일수)	#(여행 횟수)		소계	
전체	100.0	(2.2)	58.0	(3.9)	100.0	54.9	(2.4)	(2.3)	72.6	(3.5)	42.0
남자	100.0	(2.3)	59.0	(4.0)	100.0	56.1	(2.5)	(2.4)	71.0	(3.6)	41.0
여자	100.0	(2.1)	57.0	(3.7)	100.0	53.5	(2.3)	(2.2)	74.3	(3.3)	43.0
15-19세	100.0	(1.2)	48.9	(2.5)	100.0	39.1	(2.0)	(2.4)	78.1	(2.2)	51.1
20-29세	100.0	(2.3)	59.3	(3.9)	100.0	60.9	(2.6)	(2.4)	62.3	(3.7)	40.7
30-39세	100.0	(3.8)	76.9	(4.9)	100.0	58.6	(2.9)	(2.2)	76.1	(4.2)	23.1
40-49세	100.0	(2.7)	64.8	(4.1)	100.0	60.0	(2.3)	(2.3)	71.3	(3.8)	35.2
50-59세	100.0	(1.9)	55.3	(3.4)	100.0	50.2	(2.3)	(2.3)	75.5	(3.0)	44.7
60세 이상	100.0	(0.9)	37.4	(2.5)	100.0	44.4	(1.6)	(2.3)	75.2	(2.3)	62.6
65세 이상	100.0	(0.8)	32.8	(2.4)	100.0	40.1	(1.5)	(2.2)	77.1	(2.3)	67.2
초저졸 이하	100.0	(0.6)	30.9	(1.9)	100.0	38.3	(1.3)	(2.3)	76.0	(1.8)	69.1
중졸	100.0	(1.2)	41.4	(3.0)	100.0	40.1	(2.0)	(2.3)	76.9	(2.9)	58.6
고졸	100.0	(2.1)	59.0	(3.6)	100.0	56.5	(2.3)	(2.2)	71.9	(3.3)	41.0
대졸 이상	100.0	(3.5)	75.8	(4.6)	100.0	59.6	(2.8)	(2.3)	71.6	(4.1)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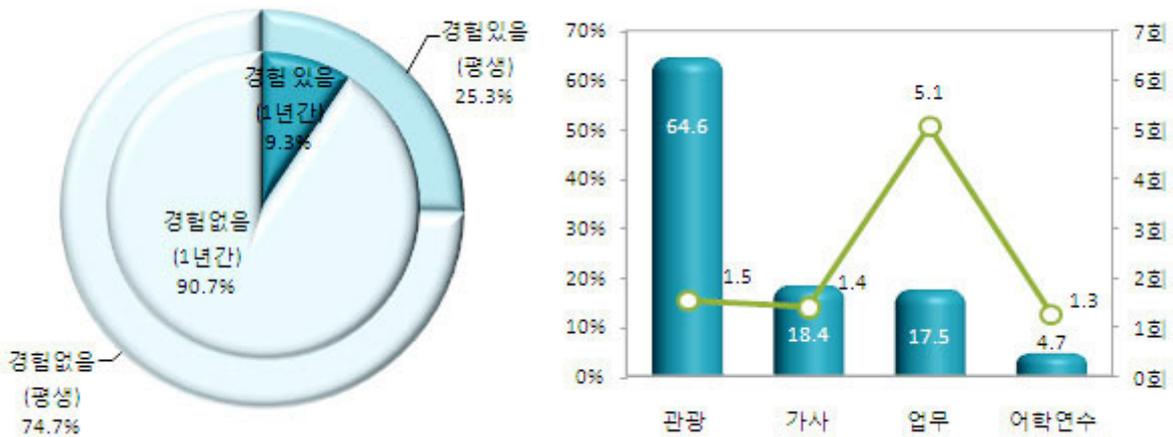
여행횟수 : 1년간 평균 여행 횟수

숙박일수 : 1년간 숙박여행 1회당 평균 숙박일수

17. 해외여행

‘1년간’ 해외 여행 ‘경험이 있는’ 군산시민은 9.3%, ‘평생’ 해외 여행 ‘경험이 있는’ 군산시민은 25.3%

- 해외 여행 목적으로는 「관광」이 64.6%로 가장 많으며, 여행횟수가 가장 많은 목적은 「업무」, 1년 평균 5.1회로 나타남
-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 해외 여행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에서 2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 해외여행 - 복수응답

(단위 :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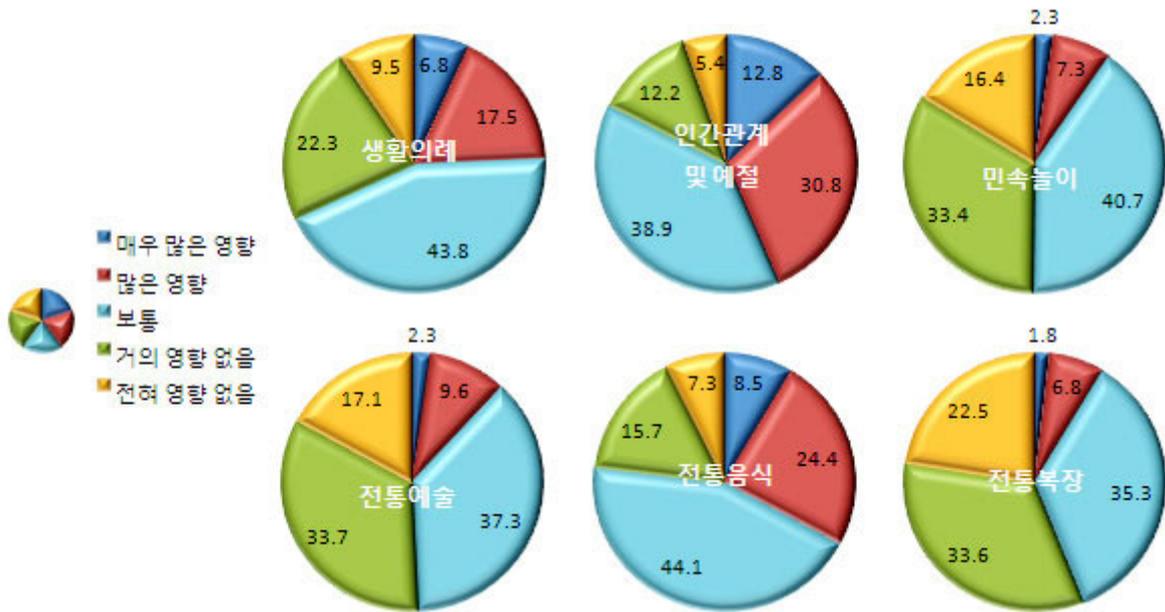
	계	경험 있음 (1년간)		소계	관광 # (여행 횟수)		가사 # (여행 횟수)		업무 # (여행 횟수)		어학연수 # (여행 횟수)		경험 없음 (1년간)
		비율 (%)	횟수		비율 (%)	횟수	비율 (%)	횟수	비율 (%)	횟수			
전 체	100.0	9.3	100.0	64.6	(1.5)	18.4	(1.4)	17.5	(5.1)	4.7	(1.3)	90.7	
남 자	100.0	9.6	100.0	59.4	(1.6)	16.5	(1.4)	25.5	(5.9)	6.5	(1.4)	90.4	
여 자	100.0	9.0	100.0	70.2	(1.5)	20.5	(1.4)	8.8	(2.3)	2.7	(1.0)	91.0	
15 - 19 세	100.0	7.6	100.0	69.9	(1.1)	20.0	(1.5)	-	(-)	20.0	(1.0)	92.4	
20 - 29 세	100.0	9.1	100.0	64.3	(1.4)	30.0	(1.1)	-	(-)	5.6	(1.0)	90.9	
30 - 39 세	100.0	10.4	100.0	49.2	(1.9)	13.2	(1.0)	32.2	(9.8)	8.2	(1.3)	89.6	
40 - 49 세	100.0	10.2	100.0	59.2	(2.2)	19.1	(1.6)	30.1	(1.8)	2.9	(2.0)	89.8	
50 - 59 세	100.0	11.1	100.0	75.1	(1.3)	12.4	(2.5)	20.6	(1.7)	-	(-)	88.9	
60 세 이상	100.0	6.7	100.0	80.7	(1.1)	19.3	(1.1)	-	(-)	-	(-)	93.3	
65 세 이상	100.0	5.9	100.0	69.4	(1.1)	30.6	(1.1)	-	(-)	-	(-)	94.1	
초 졸 이하	100.0	3.8	100.0	65.2	(1.2)	34.8	(1.1)	-	(-)	-	(-)	96.2	
중 졸	100.0	6.7	100.0	56.2	(3.7)	28.9	(1.8)	7.5	(1.0)	7.4	(1.0)	93.3	
고 졸	100.0	8.2	100.0	68.3	(1.6)	18.6	(1.2)	13.1	(14.6)	2.0	(1.0)	91.8	
대 졸 이상	100.0	13.9	100.0	63.7	(1.3)	14.3	(1.5)	24.3	(2.1)	6.4	(1.4)	86.1	

여행 횟수 : 1년간 평균 여행 횟수

18. 전통문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전통문화가 군산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분야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통문화가 군산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인간관계 및 예절'로 「보통」이상이 82.4%를 차지하며, 「매우 많은 영향」은 12.8%, 「많은 영향」은 30.8%로 나타남
- 전통문화 부문 중 '민속놀이', '전통예술', '전통복장'은 각각 49.8%, 50.8%, 56.1%로 「영향 없음」(거의 영향 없음+전혀 영향 없음)을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 전통문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소계	매우 많은 영향	많은 영향	보통	거의 영향 없음	전혀 영향 없음
생활의례	100.0	6.8	17.5	43.8	22.3	9.5
인간관계 및 예절	100.0	12.8	30.8	38.9	12.2	5.4
민속놀이	100.0	2.3	7.3	40.7	33.4	16.4
전통예술	100.0	2.3	9.6	37.3	33.7	17.1
전통음식	100.0	8.5	24.4	44.1	15.7	7.3
전통복장	100.0	1.8	6.8	35.3	33.6	22.5

3 복지 부문

19.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만60세이상)

군산시민 중 만60세이상 노인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건강문제」 68.9%, 「경제적인 어려움」이 66.2%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는 사별과 이혼의 경우 각각 32.5%, 30.7%로 「외로움, 소외감」을 겪는다는 응답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9.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만60세이상)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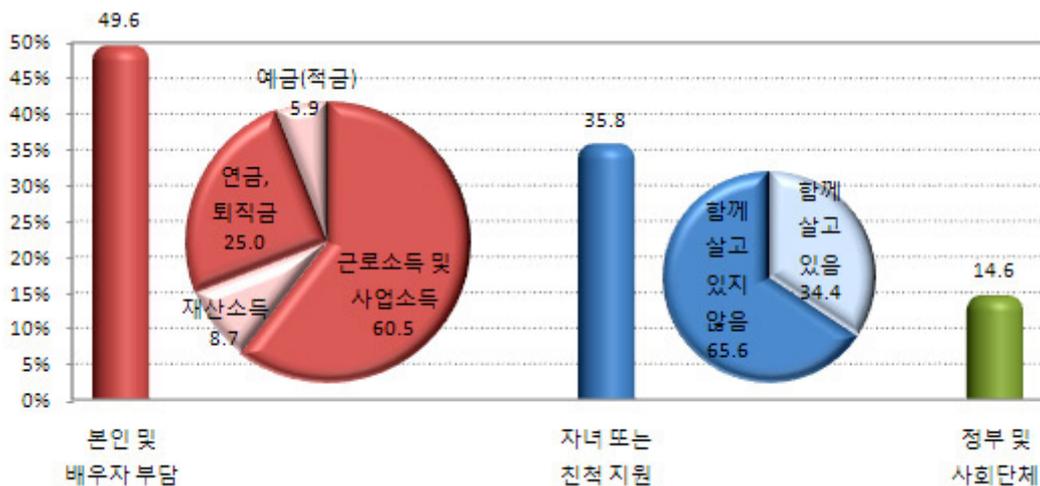
(단위 : %)

	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의 푸대접	사회적 경로 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 복지 시설 부족	기타
전 체	100.0	66.2	8.7	13.0	68.9	17.3	0.2	6.0	6.2	8.7	4.5
60 - 64 세	100.0	67.9	17.2	15.3	63.6	11.2	0.6	5.7	4.9	9.7	3.1
65 - 69 세	100.0	66.0	11.2	11.8	66.9	11.5	-	6.9	3.3	8.7	5.7
70 - 74 세	100.0	64.4	1.2	13.8	73.7	19.7	-	7.8	5.5	9.2	7.3
75 - 79 세	100.0	67.1	3.4	11.1	72.9	18.3	-	4.0	11.2	10.0	3.7
80 세 이상	100.0	64.6	1.3	10.9	74.2	39.7	-	4.4	11.1	3.8	1.3
초졸 이하	100.0	70.8	5.1	12.1	74.0	20.6	0.3	5.5	8.6	6.1	3.5
중졸	100.0	67.6	14.9	13.9	67.8	14.2	-	4.7	1.9	11.0	3.6
고졸	100.0	55.3	17.5	14.6	57.4	8.5	-	11.0	2.8	12.4	6.7
대졸 이상	100.0	45.3	7.5	15.3	51.4	14.3	-	3.5	2.6	18.0	10.8
미혼	-	-	-	-	-	-	-	-	-	-	-
배우자 있음	100.0	65.2	10.5	14.3	67.5	9.6	-	6.6	4.4	10.4	5.3
사별	100.0	67.4	4.5	11.1	72.0	32.5	-	5.1	10.2	5.5	2.6
이혼	100.0	90.9	21.0	-	71.4	30.7	11.2	-	-	-	-

20. 생활비 마련방법(만60세이상)

만60세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 49.6%

-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응답한 노인의 60.5%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25.0%는 「연금,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9.4%로 높고, 여자의 경우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 48.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을 받는 노인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녀 또는 친척과 함께 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 생활비 마련방법(만60세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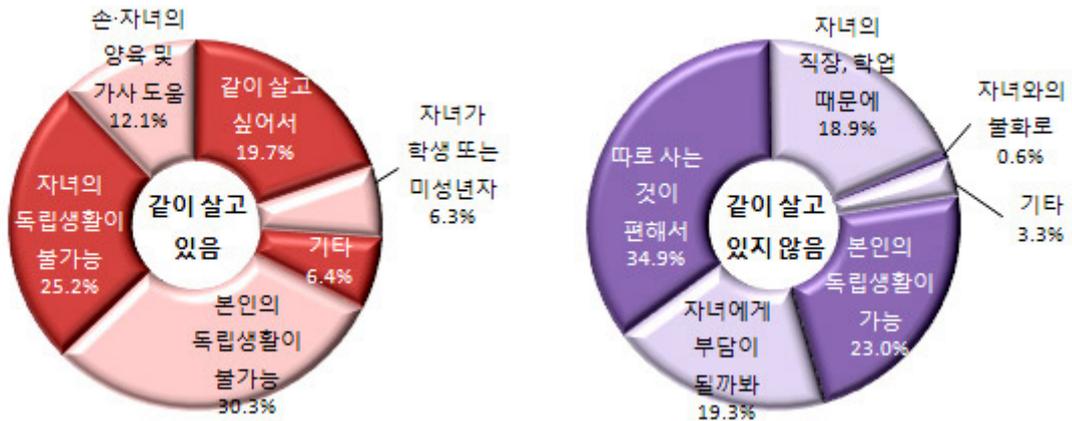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계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살고 있음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소계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전 체	100.0	49.6	100.0	60.5	8.7	25.0	5.9	35.8	100.0	34.4	65.6	14.6	-
남 자	100.0	69.4	100.0	63.4	8.2	23.6	4.8	19.3	100.0	28.9	71.1	11.3	-
여 자	100.0	35.0	100.0	56.1	9.4	27.0	7.5	48.0	100.0	36.0	64.0	17.0	-
취 업	100.0	89.5	100.0	86.6	3.2	6.8	3.4	8.3	100.0	46.6	53.4	2.2	-
미 취 업	100.0	32.8	100.0	30.4	15.0	45.8	8.8	47.4	100.0	33.5	66.5	19.8	-
100만원 미만	100.0	40.8	100.0	55.9	11.7	24.3	8.1	38.9	100.0	16.8	83.2	20.3	-
100-200만원	100.0	79.7	100.0	61.0	4.3	30.2	4.4	20.3	100.0	84.2	15.8	-	-
200-300만원	100.0	49.8	100.0	68.6	8.5	19.4	3.5	50.2	100.0	86.5	13.5	-	-
300-400만원	100.0	74.4	100.0	73.5	5.7	20.8	-	25.6	100.0	87.3	12.7	-	-
400-500만원	100.0	72.1	100.0	100.0	-	-	-	11.4	100.0	100.0	-	16.4	-
500-600만원	100.0	87.3	100.0	40.3	-	59.7	-	12.7	100.0	100.0	-	-	-
600만원 이상	100.0	54.5	100.0	100.0	-	-	-	27.0	100.0	100.0	-	18.4	-

21. 현재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이유(만60세이상)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만60세이상 노인은 28.5%

- 만60세이상 노인이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30.3%로 가장 많고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주된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가 34.9%로 가장 많음



[표 36] 현재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이유(만60세이상) - 주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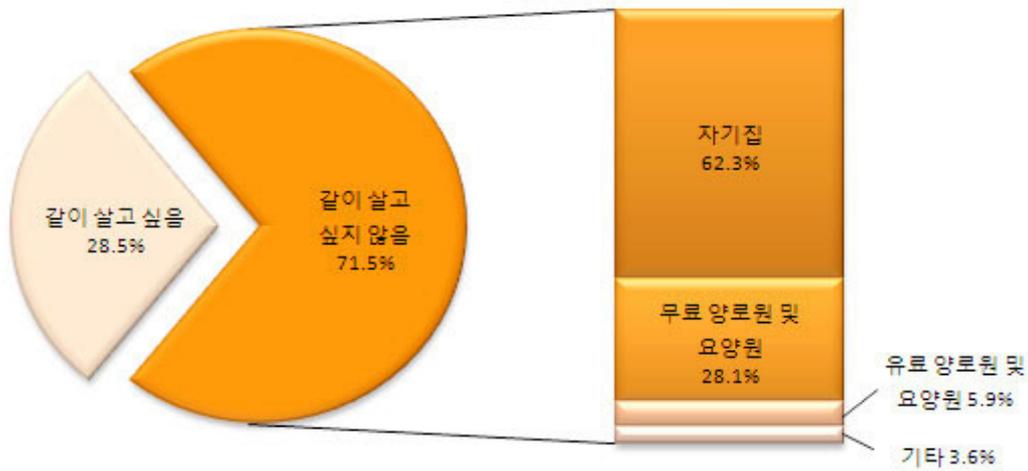
구분	계	같이 살고 있음							
		소계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	손·자녀의 양육 및 가사도움	같이 살고 싶어서	자녀가 학생 또는 미성년자	기타	
전체	100.0	28.5	100.0	30.3	25.2	12.1	19.7	6.3	6.4
남자	100.0	27.1	100.0	15.9	35.5	9.4	21.1	13.3	4.9
여자	100.0	29.6	100.0	40.0	18.2	13.9	18.8	1.7	7.4
미혼	-	-	-	-	-	-	-	-	-
배우자 있음	100.0	25.5	100.0	16.3	33.7	11.6	21.9	8.3	8.2
사별	100.0	35.2	100.0	50.4	13.2	13.3	16.9	2.3	3.9
이혼	100.0	18.8	100.0	51.8	-	-	-	48.2	-

구분	계	같이 살고 있지 않음							
		소계	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따로사는 것이 편해서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에	자녀와의 불화로	기타	
전체	71.5	100.0	23.0	19.3	34.9	18.9	0.6	3.3	
남자	72.9	100.0	25.1	18.5	32.1	20.7	0.4	3.1	
여자	70.4	100.0	21.4	20.0	37.0	17.4	0.8	3.5	
미혼	-	-	-	-	-	-	-	-	
배우자 있음	74.5	100.0	25.5	15.5	36.6	20.6	-	1.8	
사별	64.8	100.0	18.8	28.3	31.6	15.2	2.1	4.0	
이혼	81.2	100.0	-	24.0	25.0	13.8	-	37.1	

22.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만60세이상)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은」 만60세이상 노인은 28.5%

-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노인의 62.3%는 「자기집」에서, 28.1%는 「무료양로원 및 요양원」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함
- 대졸이상의 경우,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노인은 가장 많은 응답인 「자기집」 52.9% 다음으로 「유료양로원 또는 요양원」을 27.2%가 응답하였고, 고졸이하의 경우는, 모두 「자기집」 다음으로 「무료양로원 또는 요양원」을 많이 응답함



[표 37]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만60세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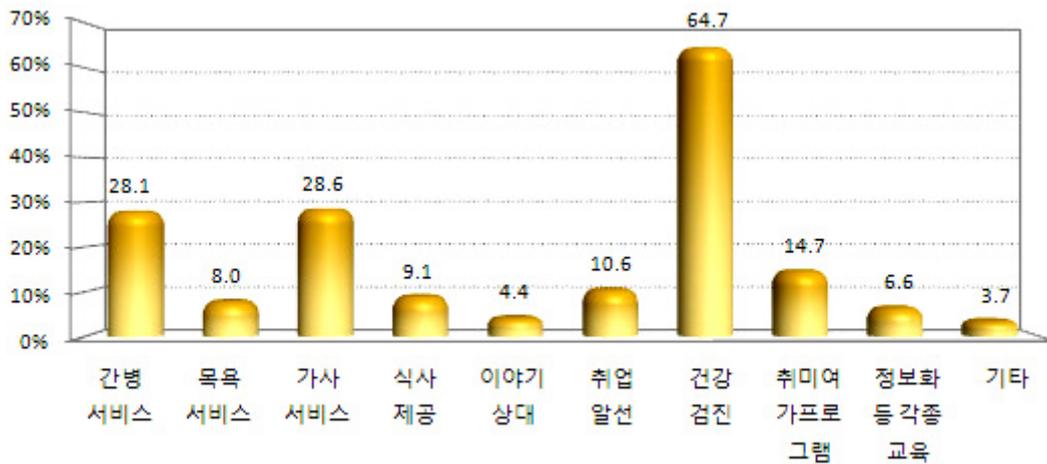
(단위 : %)

	계	같이 살고 싶은	같이 살고 싶지 않을	소계	자기집	무료양로원 및 요양원	유료양로원 및 요양원	기타
전 체	100.0	28.5	71.5	100.0	62.3	28.1	5.9	3.6
60 - 64 세	100.0	26.3	73.7	100.0	63.6	24.7	7.8	3.8
65 - 69 세	100.0	27.6	72.4	100.0	59.1	29.0	7.7	4.3
70 - 74 세	100.0	28.4	71.6	100.0	62.7	31.8	1.0	4.6
75 - 79 세	100.0	30.6	69.4	100.0	67.0	27.6	3.7	1.6
80 세 이상	100.0	33.1	66.9	100.0	60.8	29.4	7.8	2.0
초 졸 이 하	100.0	27.4	72.6	100.0	56.8	33.5	5.1	4.6
중 졸	100.0	31.0	69.0	100.0	71.2	25.0	1.5	2.3
고 졸	100.0	25.4	74.6	100.0	79.4	13.8	5.7	1.1
대 졸 이 상	100.0	38.1	61.9	100.0	52.9	16.8	27.2	3.1
미 혼	-	-	-	-	-	-	-	-
배 우 자 있음	100.0	25.1	74.9	100.0	66.0	25.1	5.6	3.4
사 별 혼	100.0	35.5	64.5	100.0	55.9	36.3	6.3	1.4
이 혼	100.0	30.1	69.9	100.0	29.1	14.0	14.0	43.0

23.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만60세이상)

만60세이상의 노인이 가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이 64.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가사서비스」 28.6%, 「간병서비스」 28.1%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목욕서비스», 「가사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며, 노인 연령대가 낮을수록 「취업알선», 「건강검진»,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 「정보화 등 각종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 「정보화 등 각종 교육」을 더 받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임



[표 38]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만60세이상) -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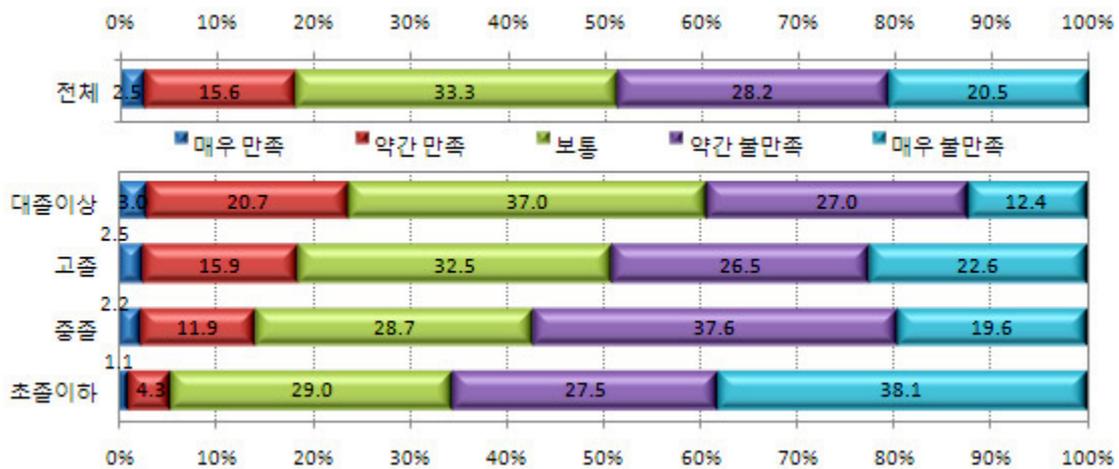
		계	받고 싶음	소계	간병 서비스	목욕 서비스	가사 서비스	식사 제공	이야기 상대	취업 알선	건강 검진	취미 여가 프로 그램	정보 화 등 각종 교육	기타	받고 싶지 않음
전	체	100.0	79.3	100.0	28.1	8.0	28.6	9.1	4.4	10.6	64.7	14.7	6.6	3.7	20.7
남	자	100.0	79.0	100.0	25.8	6.4	19.7	7.4	4.0	15.7	62.5	19.1	10.7	3.0	21.0
여	자	100.0	79.4	100.0	29.7	9.2	35.1	10.5	4.7	6.9	66.3	11.6	3.6	4.3	20.6
60-64	세	100.0	78.4	100.0	20.5	3.5	20.2	5.9	1.5	14.6	71.2	23.9	10.8	1.3	21.6
65-69	세	100.0	75.7	100.0	35.6	8.3	26.3	9.3	5.0	10.5	65.3	12.5	6.6	3.2	24.3
70-74	세	100.0	82.1	100.0	26.5	5.6	24.8	10.7	3.2	12.9	69.3	11.9	6.1	4.9	17.9
75-79	세	100.0	81.7	100.0	30.5	10.2	37.1	6.6	-	7.7	60.8	11.9	3.1	4.9	18.3
80세	이상	100.0	81.8	100.0	29.4	19.4	48.9	16.6	16.9	1.6	45.8	6.4	1.6	7.0	18.2
초	졸 이	100.0	79.8	100.0	30.8	10.3	38.0	12.8	5.5	8.2	64.2	7.2	3.0	5.5	20.2
중	졸	100.0	76.7	100.0	28.8	6.2	15.7	1.2	3.4	14.1	69.0	17.6	8.2	-	23.3
고	졸	100.0	78.6	100.0	22.3	4.1	10.9	4.0	-	19.1	66.7	35.3	15.8	1.4	21.4
대	졸 이	100.0	81.7	100.0	14.2	-	12.2	6.4	5.9	6.4	55.1	31.7	15.5	2.1	18.3

4 소득과 소비 부문

24. 소득만족도

군산시민의 소득만족도는 「불만족」(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 48.7%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소득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에 대한 「불만족」이 높고, 「소득있음」에 가장 많이 응답한 30-50대의 경우도 소득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 소득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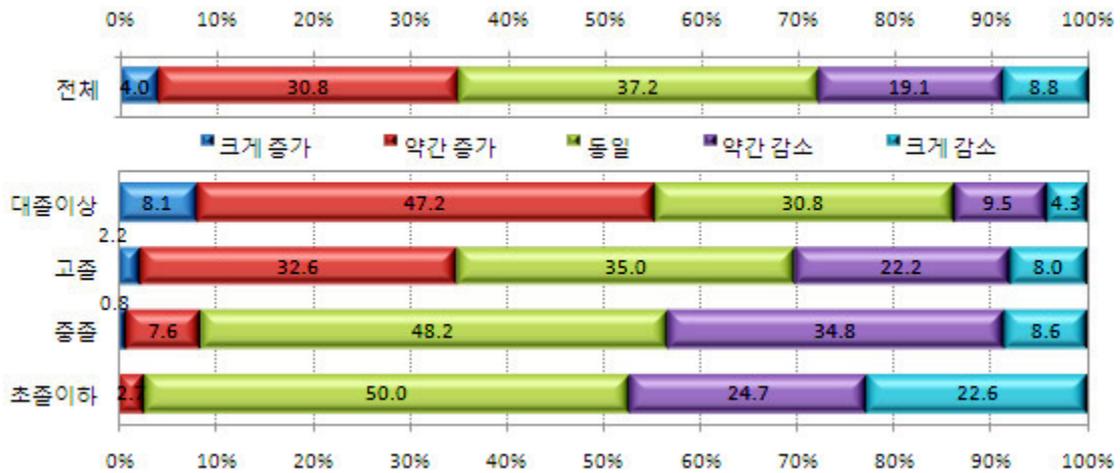
(단위 : %)

	계	소득 있음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소득 없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100.0	59.3	100.0	18.0	2.5	15.6	33.3	48.7	28.2	20.5	40.7
남 자	100.0	76.3	100.0	20.4	3.0	17.4	30.6	49.0	27.6	21.3	23.7
여 자	100.0	42.1	100.0	13.5	1.4	12.1	38.2	48.2	29.3	19.0	57.9
15 - 19 세	100.0	3.8	100.0	40.1	-	40.1	39.9	20.0	20.0	-	96.2
20 - 29 세	100.0	48.2	100.0	15.2	1.1	14.1	42.2	42.6	30.1	12.5	51.8
30 - 39 세	100.0	69.0	100.0	24.2	3.0	21.2	31.0	44.7	27.5	17.2	31.0
40 - 49 세	100.0	74.5	100.0	21.8	2.3	19.5	28.9	49.3	29.8	19.6	25.5
50 - 59 세	100.0	69.4	100.0	17.4	3.6	13.7	32.1	50.5	30.6	19.9	30.6
60 세 이 상	100.0	58.4	100.0	8.0	1.9	6.0	36.2	55.8	23.8	32.0	41.6
65 세 이 상	100.0	56.7	100.0	7.2	2.3	4.9	34.7	58.2	24.1	34.1	43.3
초 졸 이 하	100.0	52.7	100.0	5.4	1.1	4.3	29.0	65.6	27.5	38.1	47.3
중 졸	100.0	60.5	100.0	14.1	2.2	11.9	28.7	57.2	37.6	19.6	39.5
고 졸	100.0	54.5	100.0	18.4	2.5	15.9	32.5	49.0	26.5	22.6	45.5
대 졸 이 상	100.0	67.1	100.0	23.6	3.0	20.7	37.0	39.4	27.0	12.4	32.9

25. 장래 소득에 대한 기대(소득 있는 사람)

장래의 소득수준에 대한 기대는 「동일」 할 것이다, 37.2%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장래의 소득수준이 「증가」(크게증가+약간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동일」 하거나 「감소」(약간감소+크게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장래의 소득수준이 계속 「감소」 할 것이라고 응답함



[표 40] 장래 소득에 대한 기대(소득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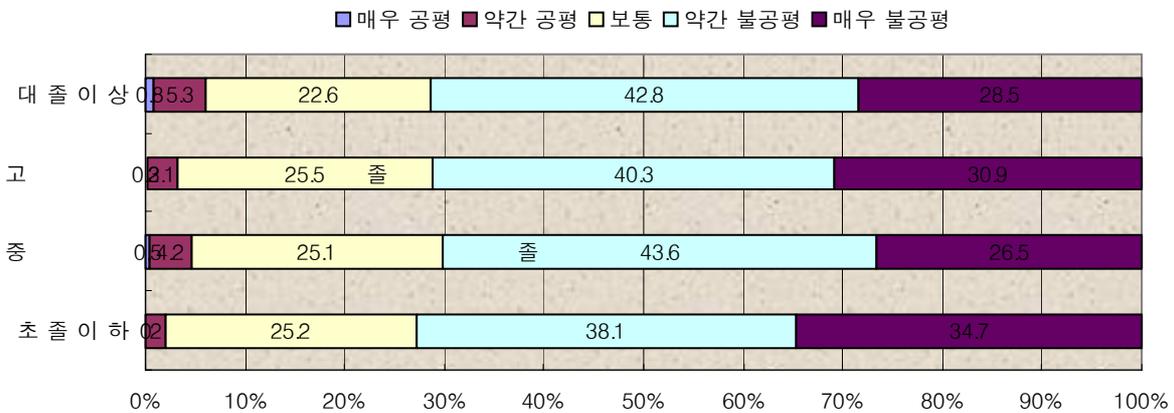
(단위 : %)

	계	크게증가	약간증가	동일	약간감소	크게감소
전체	100.0	4.0	30.8	37.2	19.1	8.8
15-19세	100.0	-	80.0	20.0	-	-
20-29세	100.0	10.1	49.7	28.4	8.4	3.3
30-39세	100.0	6.4	54.4	28.3	7.3	3.6
40-49세	100.0	4.5	30.9	41.6	18.8	4.1
50-59세	100.0	-	15.5	37.2	33.2	14.1
60세 이상	100.0	0.3	3.2	48.7	27.9	19.9
65세 이상	100.0	0.4	1.6	50.4	25.8	21.7
초졸이하	100.0	-	2.7	50.0	24.7	22.6
중졸	100.0	0.8	7.6	48.2	34.8	8.6
고졸	100.0	2.2	32.6	35.0	22.2	8.0
대졸이상	100.0	8.1	47.2	30.8	9.5	4.3
100만원미만	100.0	2.7	17.3	41.5	24.1	14.4
100-200만원	100.0	3.4	39.4	31.8	18.5	6.8
200-300만원	100.0	5.1	33.4	38.6	17.2	5.7
300-400만원	100.0	5.4	43.4	37.6	9.1	4.5
400-500만원	100.0	4.5	48.8	24.9	15.8	5.9
500-600만원	100.0	19.4	36.4	35.5	6.4	2.2
600만원이상	100.0	2.5	34.5	46.3	15.2	1.6

26. 소득 분배에 대한 견해

현재 사회의 소득분배(빈부격차 등)에 대한 군산시민의 생각은 「불공평(약간 불공평+매우 불공평)」 71.3%, 「공평(매우 공평+약간 공평)」 4.2%로 「불공평」 하다가 더 큰 수치를 나타냄

- 성별로 보면, 남자 여자 모두 71.4%가 「불공평」 하다고 응답했으며, 남자는 4.8%, 여자는 3.6%가 「공평」 하다고 응답
- 소득별로 보면, 「공평」 하다는 응답은 15.1%로 600만원 이상 가구 소득자가 가장 높았으며, 「불공평」 하다는 응답은 74.3%로 400-500만원 미만 가구 소득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 소득 분배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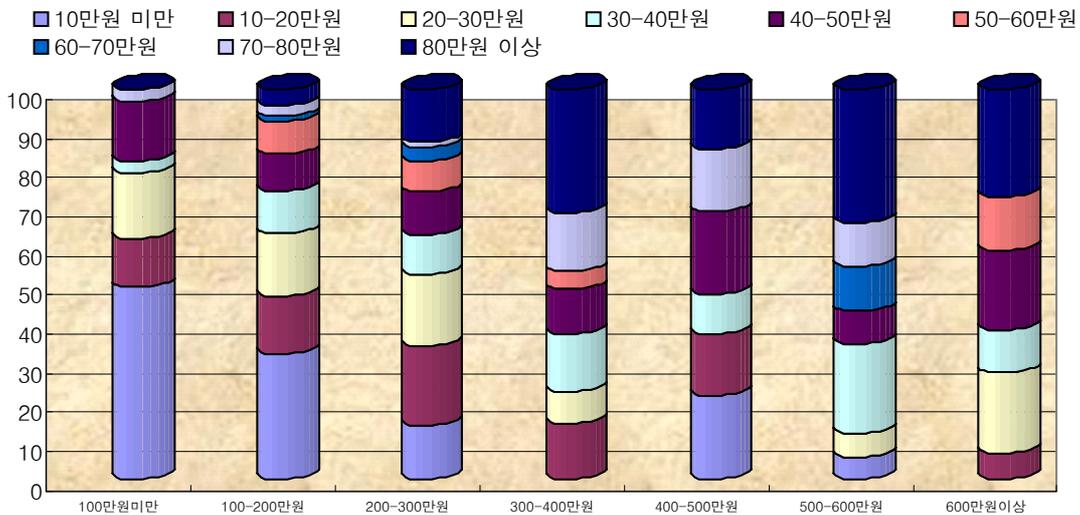
(단위 : %)

	계	매우 공평	약간 공평	보통	약간 불공평	매우 불공평
전체	100.0	0.4	3.8	24.4	41.2	30.1
남자	100.0	0.5	4.3	23.8	39.8	31.6
여자	100.0	0.3	3.3	24.9	42.7	28.7
초졸 이하	100.0	0.0	2.0	25.2	38.1	34.7
중졸	100.0	0.5	4.2	25.1	43.6	26.5
고졸	100.0	0.2	3.1	25.5	40.3	30.9
대졸 이상	100.0	0.8	5.3	22.6	42.8	28.5
100만원미만	100.0	0.0	2.8	24.1	37.5	35.5
100-200만원	100.0	0.0	1.5	26.3	40.5	31.7
200-300만원	100.0	0.8	5.0	25.9	38.7	29.6
300-400만원	100.0	3.1	6.9	34.7	33.2	22.2
400-500만원	100.0	0.0	3.7	21.9	37.3	37.1
500-600만원	100.0	0.0	4.0	28.1	56.5	11.4
600만원이상	100.0	0.0	15.1	20.0	38.9	26.0

27. 사교육비(가구주)

자녀가 있고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중 2009년 1월~6월간 월평균 지출이 10만원 미만인 가구가 20.8%로 가장 많고, 80만원 이상 가구는 13.4% 차지

- 가구주의 교육정도가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경향 높음
- 자녀가 있고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중, 초졸 이하의 가구주 48.8%가 20-30만원에서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대졸 이상 가구주는 80만원 이상까지 전 구간에서 고르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향



[표 42] 사교육비(가구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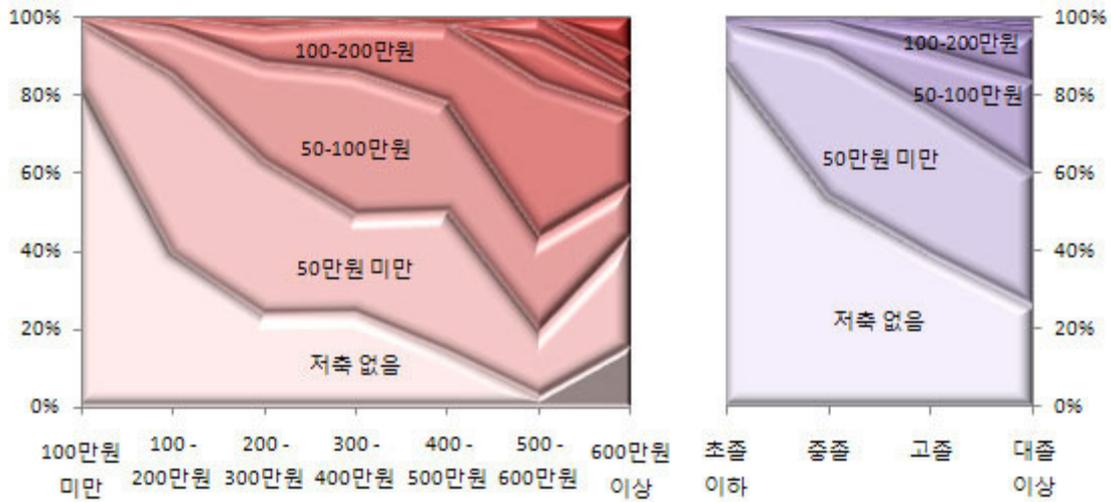
	# 계	10만원 미만	10만원-20만원	20만원-30만원	30만원-40만원	40만원-50만원	50만원-60만원	60만원-70만원	70만원-80만원	80만원 이상
전 체	100.0	20.8	14.8	14.4	11.1	12.2	6.0	2.3	4.8	13.4
남 자	100.0	19.6	14.5	15.5	11.3	10.9	6.2	2.7	5.3	14.0
여 자	100.0	28.6	16.7	8.0	10.0	19.7	5.4	0.0	2.3	9.3
초 졸 이 하	100.0	0.0	16.3	48.8	18.5	16.3	0.0	0.0	0.0	0.0
중 졸	100.0	24.8	22.2	11.5	11.3	23.1	0.0	0.0	0.0	7.0
고 졸	100.0	26.4	16.2	14.6	10.8	8.0	6.8	0.8	7.7	8.7
대 졸 이 상	100.0	16.8	12.7	13.0	11.0	14.1	6.5	4.0	3.3	18.5
100만원미만	100.0	49.1	12.5	16.7	3.2	15.4	0.0	0.0	3.1	0.0
100-200만원	100.0	32.1	14.6	16.2	10.8	9.6	8.3	1.3	2.8	4.2
200-300만원	100.0	13.6	20.6	18.1	10.5	10.8	7.8	3.7	1.3	13.5
300-400만원	100.0	0.0	14.4	8.0	14.8	11.5	4.6	0.0	14.9	31.8
400-500만원	100.0	21.5	15.6	0.0	10.4	21.0	0.0	0.0	16.1	15.4
500-600만원	100.0	5.8	0.0	5.8	23.2	8.2	0.0	11.4	11.3	34.3
600만원이상	100.0	0.0	6.7	20.6	10.8	20.4	13.8	0.0	0.0	27.7

월평균 사교육비

28. 저축(가구주)

군산시의 6개월간 「저축 없는」 가구는 46.4%, 「50만원 미만」 30.7%, 「50-100만원」 13.9% 로 나타남

- 월 평균 저축액은 「50만원 미만」 이 3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50-100만원」 13.9%, 「100-200만원」 6.5%, 「200-300만원」 1.2% 로 나타남
- 가구주의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가구의 월 평균 저축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 저축(가구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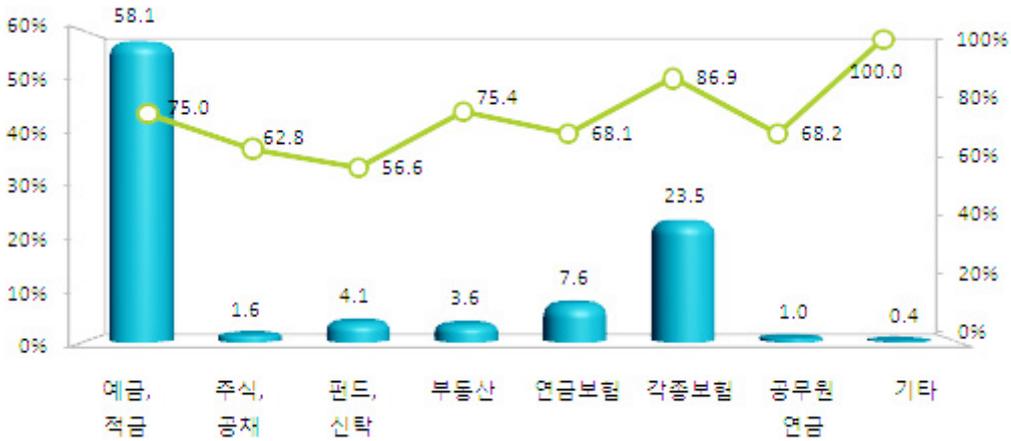
	# 계	저축없음	50만원 미만	50-100만원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전 체	100.0	46.4	30.7	13.9	6.5	1.2	0.6	0.4	0.4
남 자	100.0	40.6	32.5	16.3	7.9	1.3	0.5	0.5	0.5
여 자	100.0	65.6	24.7	6.0	1.9	0.9	0.9	-	-
초 졸 이 하	100.0	87.5	10.2	0.8	0.5	0.7	0.4	-	-
중 졸	100.0	53.5	37.1	7.6	1.9	-	-	-	-
고 졸	100.0	38.4	37.5	14.9	6.8	1.3	0.7	-	0.4
대 졸 이 상	100.0	25.4	33.8	23.9	12.2	2.1	0.8	1.1	0.7
100만원미만	100.0	82.8	15.8	1.5	-	-	-	-	-
100-200만원	100.0	39.2	45.7	11.5	3.1	0.5	-	-	-
200-300만원	100.0	23.4	39.5	24.8	9.1	2.7	0.6	-	-
300-400만원	100.0	23.7	25.3	36.3	13.0	-	1.6	-	-
400-500만원	100.0	13.9	36.0	27.8	19.8	-	-	2.5	-
500-600만원	100.0	2.6	17.1	23.9	39.1	10.4	6.8	-	-
600만원이상	100.0	15.5	28.8	13.0	17.9	6.0	3.2	6.3	9.3

월평균 저축액

29. 저축수단(가구주)

군산시민의 가구주가 주로 이용하는 저축 수단은 「예금, 적금」 58.1%

- 주된 저축수단으로 가장 적게 응답한(0.4%) 「기타」의 경우, 평균 보유율은 100%로 모두 '친목 계'인 것으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주된 저축수단으로 「예금, 적금」 35.8%보다 「생명보험 등 각종보험」을 64.2%로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 저축수단(가구주) - 주응답

(단위 : %)

	계	예금, 적금	#(보유 비율)	주식, 공채	#(보유 비율)	펀드, 신탁	#(보유 비율)	부동산	#(보유 비율)
전 체	100.0	58.1	(75.0)	1.6	(62.8)	4.1	(56.6)	3.6	(75.4)
남 자	100.0	59.4	(74.5)	1.9	(62.8)	4.1	(57.2)	4.1	(75.6)
여 자	100.0	50.8	(78.5)	-	(-)	4.1	(53.0)	1.0	(70.0)
임금근로자	100.0	60.7	(73.7)	2.3	(63.3)	4.6	(52.2)	4.5	(75.2)
고용주	100.0	74.5	(73.3)	-	(-)	4.8	(60.0)	3.3	(70.0)
자영자	100.0	56.1	(74.3)	1.0	(60.0)	2.7	(67.1)	2.6	(78.6)
무급가족종사자	100.0	35.8	(100.0)	-	(-)	-	(-)	-	(-)

	연금보험	#(보유 비율)	각종보험	#(보유 비율)	공무원 연금	#(보유 비율)	기타	#(보유 비율)
전 체	7.6	(68.1)	23.5	(86.9)	1.0	(68.2)	0.4	(100.0)
남 자	7.3	(65.8)	22.1	(84.2)	0.9	(70.5)	0.1	(100.0)
여 자	9.2	(78.4)	31.2	(98.0)	1.5	(60.0)	2.2	(100.0)
임금근로자	7.0	(65.6)	19.8	(82.9)	1.0	(60.8)	-	(-)
고용주	8.8	(83.2)	8.7	(77.8)	-	(-)	-	(-)
자영자	8.4	(63.9)	27.1	(87.1)	1.6	(80.2)	0.4	(100.0)
무급가족종사자	-	(-)	64.2	(100.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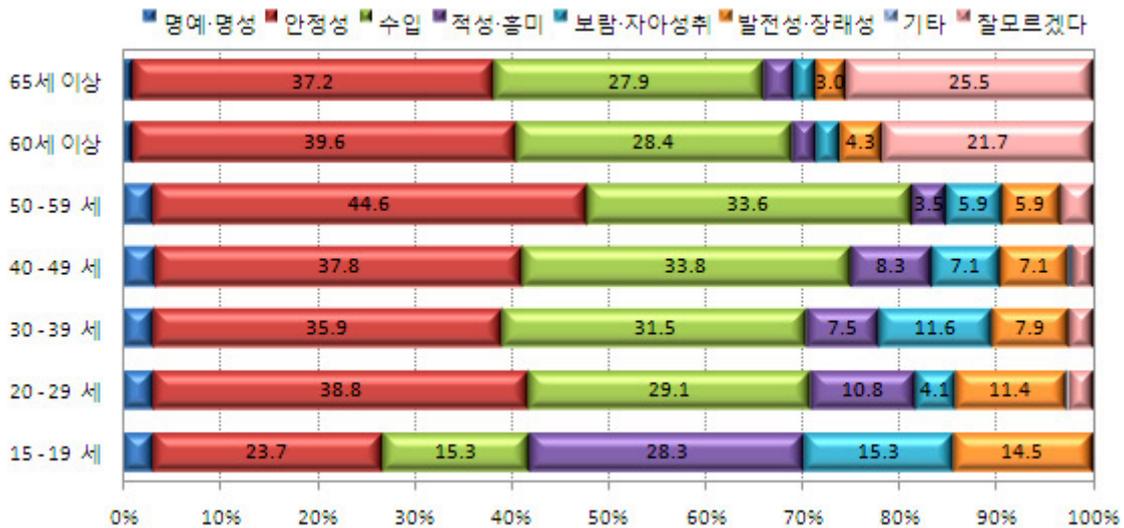
보유비율 : 평균 보유비율

5 노동 부문

30. 직업 선택 요인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안정성」 37.9%, 「수입」 30.0%, 「적성·흥미」 8.2%, 「발전성·장래성」 7.8%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적성·흥미」,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을 주된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명예·명성」, 「적성·흥미」,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을 주된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표 45] 직업 선택 요인 - 주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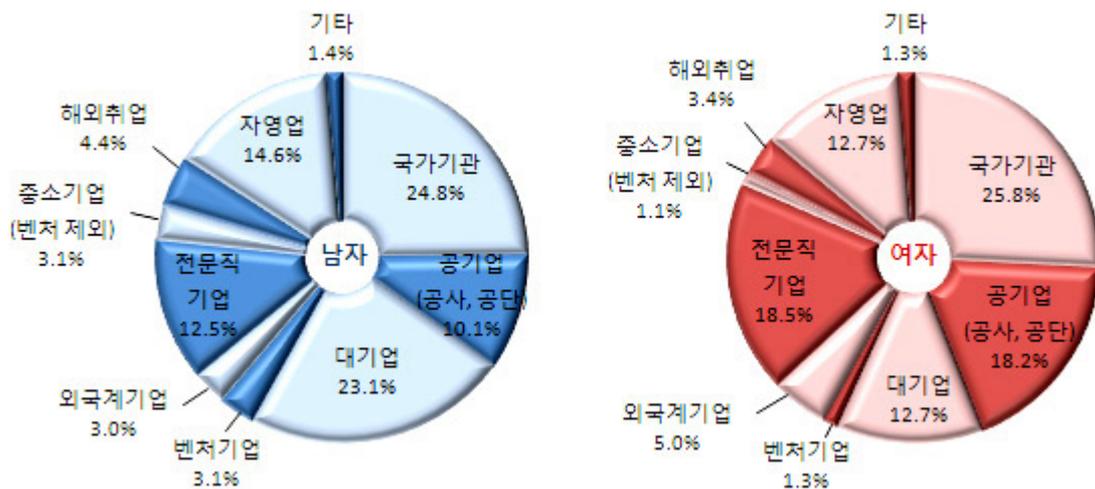
(단위 : %)

	계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흥미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	기타	잘 모르겠다
전 체	100.0	2.7	37.9	30.0	8.2	7.0	7.8	0.1	6.3
15-19 세	100.0	3.0	23.7	15.3	28.3	15.3	14.5	-	-
20-29 세	100.0	3.1	38.8	29.1	10.8	4.1	11.4	0.4	2.5
30-39 세	100.0	3.1	35.9	31.5	7.5	11.6	7.9	-	2.5
40-49 세	100.0	3.4	37.8	33.8	8.3	7.1	7.1	0.3	2.2
50-59 세	100.0	3.1	44.6	33.6	3.5	5.9	5.9	-	3.5
60세 이상	100.0	1.0	39.6	28.4	2.6	2.5	4.3	-	21.7
65세 이상	100.0	1.0	37.2	27.9	3.1	2.3	3.0	-	25.5
초졸 이하	100.0	1.2	32.1	35.7	1.8	0.3	3.8	-	25.0
중졸	100.0	1.4	43.2	32.7	5.0	4.9	5.3	-	7.6
고졸	100.0	2.7	38.2	31.3	10.9	6.9	7.6	0.3	2.2
대졸 이상	100.0	4.0	38.5	24.9	9.7	11.1	10.9	-	1.0

31.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만29세이하)

만29세이하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 25.3%, 「공기업」 13.8%

- 여자의 경우 「공기업(공사, 공단)」과 「전문직 기업」을 각각 18.2%, 18.5%로 남자의 경우보다 더 선호하고, 남자는 「대기업」을 23.1%로 여자의 경우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10대의 경우 「외국계 기업」, 「전문직 기업」을 각각 6.1%, 21.4%로 20대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만29세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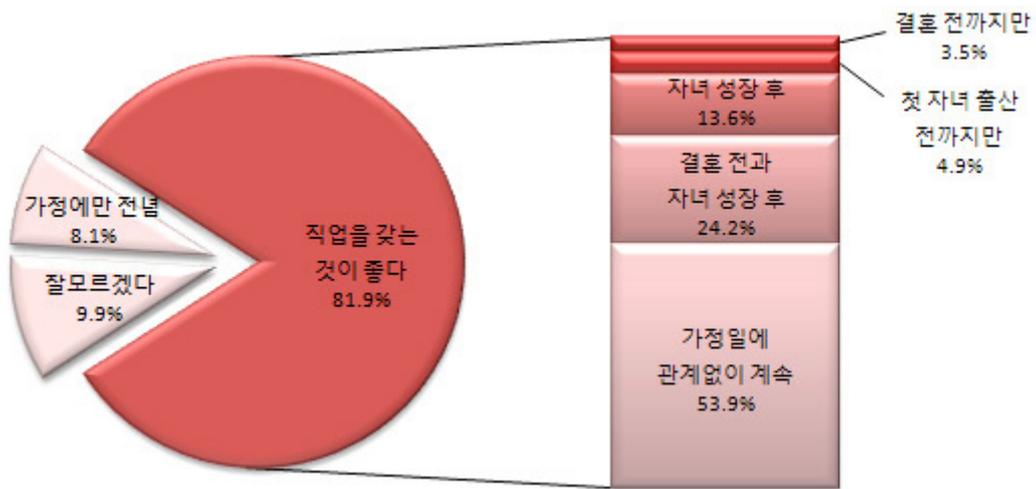
(단위 : %)

	계	국가기관	공기업 (공사, 공단)	대기업	벤처기업	외국계기업	전문직기업	중소기업 (벤처 제외)	해외취업	자영업	기타
전체	100.0	25.3	13.8	18.3	2.3	3.9	15.3	2.2	4.0	13.7	1.3
남자	100.0	24.8	10.1	23.1	3.1	3.0	12.5	3.1	4.4	14.6	1.4
여자	100.0	25.8	18.2	12.7	1.3	5.0	18.5	1.1	3.4	12.7	1.3
15-19세	100.0	25.9	9.1	15.3	3.8	6.1	21.4	2.3	5.3	7.6	3.1
20-29세	100.0	24.9	16.1	19.7	1.5	2.9	12.3	2.1	3.3	16.6	0.5
취업	100.0	24.6	11.5	20.3	3.0	1.9	12.6	1.9	2.7	20.7	0.8
미취업	100.0	25.5	14.9	17.4	1.9	4.8	16.5	2.3	4.5	10.5	1.6
전문관리	100.0	33.7	20.5	13.9	-	-	14.0	-	3.2	14.7	-
사무	100.0	32.9	18.5	15.9	-	-	12.6	4.2	5.9	10.1	-
서비스판매	100.0	16.2	-	18.8	3.2	4.5	12.3	-	3.2	41.8	-
농어업	100.0	100.0	-	-	-	-	-	-	-	-	-
기능노무	100.0	15.8	9.2	30.5	7.6	2.7	12.0	3.8	-	15.8	2.7

32.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군산시민의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81.9%

- 여성취업의 기간에 대해, 53.9%가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직업별로는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19.5%가 여성은 취업보다 「가정에만 전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



[표 47]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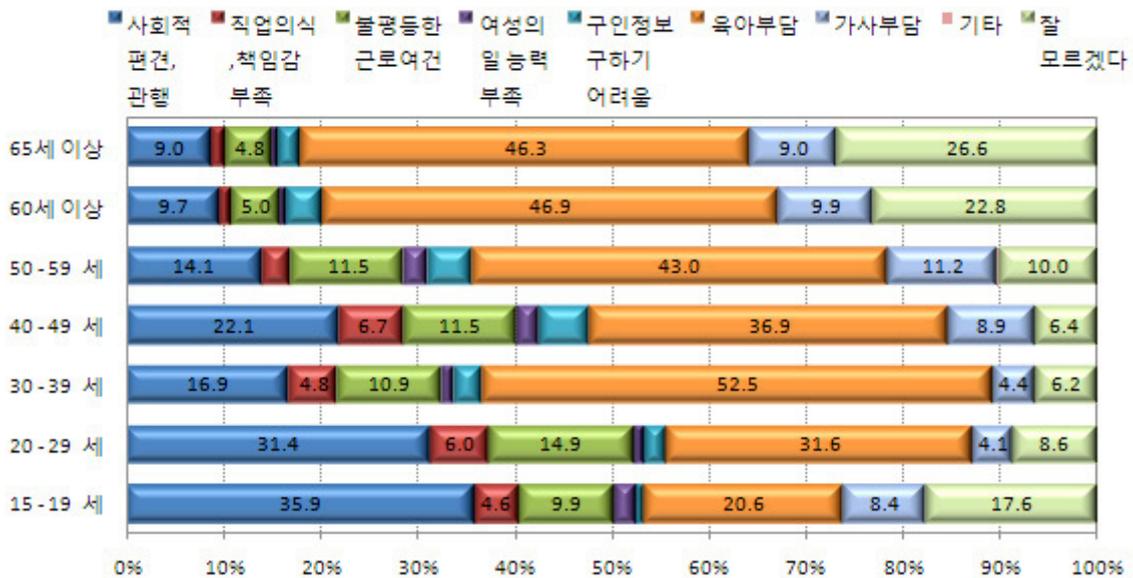
(단위 : %)

	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소계	직업에 대한 견해					가정에만 전념	잘 모르겠다
				결혼 전까지만	첫 자녀 출산 전까지만	자녀 성장 후	결혼전과 자녀 성장 후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전 체	100.0	81.9	100.0	3.5	4.9	13.6	24.2	53.9	8.1	9.9
초졸 이하	100.0	71.1	100.0	2.6	3.4	13.3	20.2	60.5	9.1	19.8
중졸	100.0	80.3	100.0	3.1	4.8	13.2	19.7	59.2	9.8	10.0
고졸	100.0	81.4	100.0	3.4	6.0	14.5	24.5	51.7	9.2	9.3
대졸 이상	100.0	88.2	100.0	4.0	4.5	12.9	26.8	51.8	6.0	5.7
농림어업	100.0	71.7	100.0	3.7	3.3	12.5	17.3	63.2	19.5	8.8
광업·제조업	100.0	82.4	100.0	3.6	7.8	18.5	26.6	43.5	8.1	9.5
사회간접자본·기타서비스업	100.0	85.3	100.0	4.6	4.3	15.4	25.4	50.3	8.0	6.7
전문관리	100.0	92.8	100.0	4.1	1.3	15.9	29.7	49.0	4.0	3.3
사무	100.0	86.6	100.0	6.0	8.9	14.7	26.2	44.2	6.1	7.3
서비스판매	100.0	84.3	100.0	2.6	4.3	15.6	22.5	55.0	9.0	6.7
농어업	100.0	72.7	100.0	3.7	3.3	12.7	16.7	63.6	19.5	7.8
기능노무	100.0	80.3	100.0	5.4	6.4	16.7	25.2	46.2	9.9	9.8

33. 여성 취업 장애 요인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육아부담」 40.8%

-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실제 육아시기에 많이 해당하는 30대가 「육아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관행」을 많이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남



[표 48] 여성 취업 장애 요인 - 주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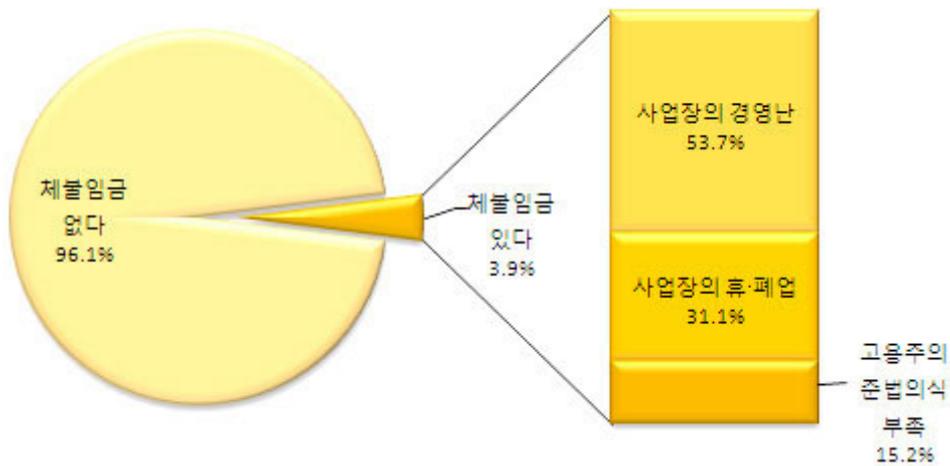
(단위 : %)

	계	사회적 편견 및 관행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여성의 일 능력 부족	구인정보 구하기 어려움	육아부담	가사부담	기타	잘 모르겠다
전 체	100.0	20.0	4.4	10.5	1.7	3.5	40.8	7.7	0.0	11.5
남 자	100.0	21.2	5.8	10.4	1.4	2.8	37.8	7.7	-	12.9
여 자	100.0	18.7	2.9	10.7	1.9	4.1	43.8	7.8	0.1	10.1
15-19 세	100.0	35.9	4.6	9.9	2.3	0.8	20.6	8.4	-	17.6
20-29 세	100.0	31.4	6.0	14.9	1.1	2.3	31.6	4.1	-	8.6
30-39 세	100.0	16.9	4.8	10.9	1.3	2.9	52.5	4.4	-	6.2
40-49 세	100.0	22.1	6.7	11.5	2.4	5.1	36.9	8.9	-	6.4
50-59 세	100.0	14.1	3.0	11.5	2.7	4.4	43.0	11.2	0.2	10.0
60세 이상	100.0	9.7	1.3	5.0	0.6	3.7	46.9	9.9	-	22.8
65세 이상	100.0	9.0	1.5	4.8	0.4	2.4	46.3	9.0	-	26.6
초 졸 이 하	100.0	7.3	1.6	3.3	1.6	4.4	44.8	10.6	-	26.3
중 졸	100.0	17.6	1.9	12.0	1.0	4.7	39.1	9.3	-	14.4
고 졸	100.0	19.7	5.8	10.2	1.5	3.5	41.0	7.6	0.1	10.7
대 졸 이 상	100.0	27.2	5.0	13.9	2.1	2.5	39.2	5.9	-	4.2

34. 임금 체불(임금근로자)

1년간 「체불임금이 있는」 임금근로자는 3.9%, 임금 체불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장의 경영난」 53.7%

- 전문관리직과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사업장의 휴·폐업」을 임금 체불의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직종에 비해 기능노무직이 5.7%로 1년간 임금 체불 경험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임금 체불(임금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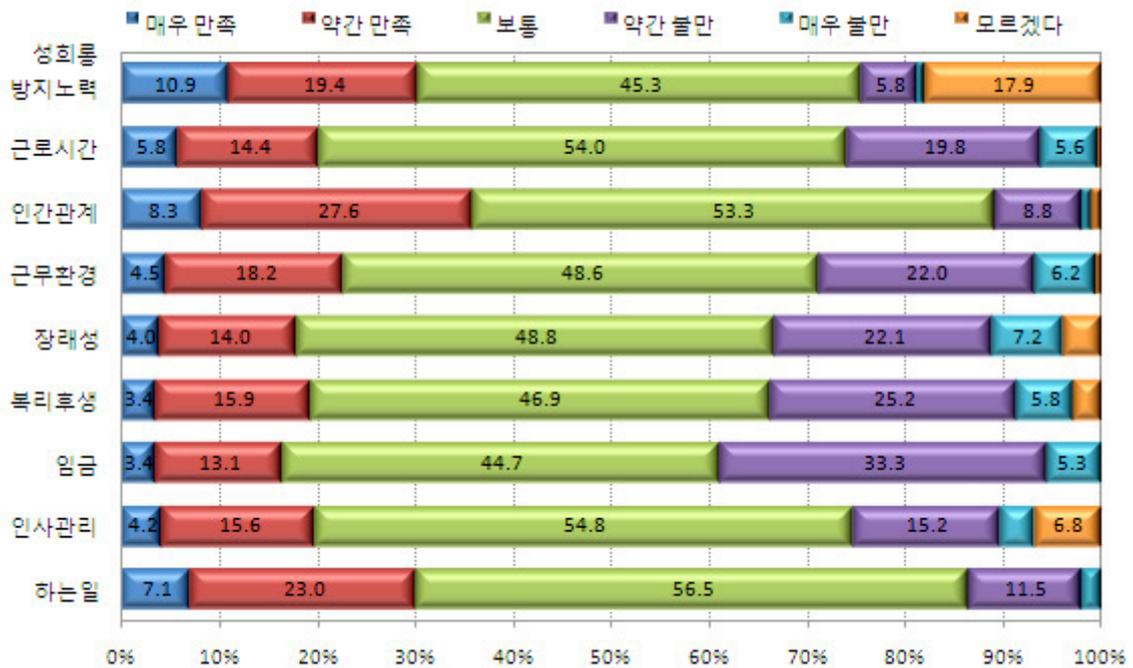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체불임금 있다							기타	체불임금 없다
		소계	사업장의 경영난	사업장의 휴·폐업	고용주와 법리적인 다툼	고용주의 준법의식 부족	기타			
전체	100.0	3.9	100.0	53.7	31.1	-	15.2	-	96.1	
남자	100.0	3.5	100.0	58.0	16.4	-	25.6	-	96.5	
여자	100.0	4.8	100.0	47.5	52.5	-	-	-	95.2	
15-19세	100.0	-	-	-	-	-	-	-	100.0	
20-29세	100.0	3.4	100.0	22.7	77.3	-	-	-	96.6	
30-39세	100.0	2.2	100.0	49.3	-	-	50.7	-	97.8	
40-49세	100.0	5.4	100.0	50.2	29.7	-	20.1	-	94.6	
50-59세	100.0	6.8	100.0	80.0	20.0	-	-	-	93.2	
60세 이상	100.0	-	-	-	-	-	-	-	100.0	
65세 이상	100.0	-	-	-	-	-	-	-	100.0	
전문관리	100.0	2.1	100.0	-	100.0	-	-	-	97.9	
사무	100.0	2.4	100.0	100.0	-	-	-	-	97.6	
서비스판매	100.0	2.5	100.0	34.1	65.9	-	-	-	97.5	
농어업	100.0	-	-	-	-	-	-	-	100.0	
기능노무	100.0	5.7	100.0	60.3	15.5	-	24.2	-	94.3	

35. 근로여건 만족도(임금근로자)

군산시민의 직장에 대한 근로여건 만족도는 모든 분야에서 「보통」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여건 중 가장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온 분야는 「성희롱 방지노력」 10.9%, 하지만 「모르겠다」는 응답도 17.9%로 근로여건 분야 중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남
- 근로여건 중 「매우 불만」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온 분야는 「직장에서의 장래성」 7.2%, 「근무환경(안전, 위생상태 등)」 6.2%, 「복리후생」 5.8%, 「근로시간」 5.6% 순으로 나타남



[표 50] 근로여건 만족도(임금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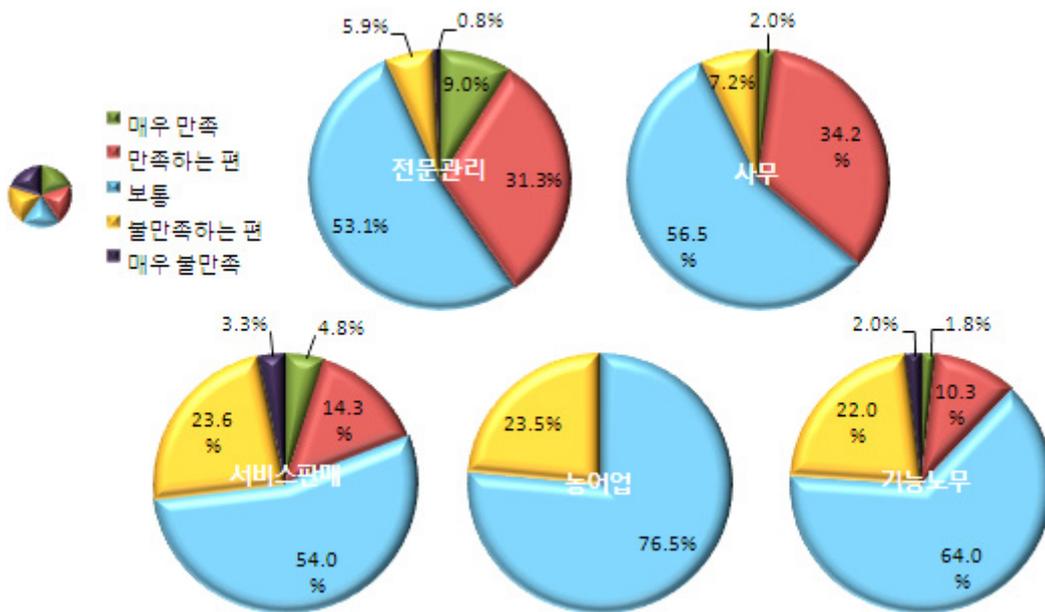
(단위 : %)

	소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모르겠다
하 는 일	100.0	7.1	23.0	56.5	11.5	1.8	0.2
인 사 관 리	100.0	4.2	15.6	54.8	15.2	3.4	6.8
임 금	100.0	3.4	13.1	44.7	33.3	5.3	0.3
복 리 후 생	100.0	3.4	15.9	46.9	25.2	5.8	2.8
장 래 성	100.0	4.0	14.0	48.8	22.1	7.2	4.0
근 무 환 경	100.0	4.5	18.2	48.6	22.0	6.2	0.6
인 간 관 계	100.0	8.3	27.6	53.3	8.8	1.1	1.0
근 로 시 간	100.0	5.8	14.4	54.0	19.8	5.6	0.5
성희롱 방지노력	100.0	10.9	19.4	45.3	5.8	0.8	17.9

36. 현재 일자리 만족도(임금근로자)

모든 근로여건을 고려할 때 군산시민의 현재 일자리 「불만족도 (불만족하는 편 + 매우 불만족)」는 18.4%로 나타남

- 현재 일자리에 대해 「매우 만족」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전문관리직으로 9.0%를 차지하고, 농어업직의 경우 「매우 불만족」 한다는 응답은 없었으나 「보통」 이하의 응답이 100.0%를 차지함



[표 51] 현재 일자리 만족도(임금근로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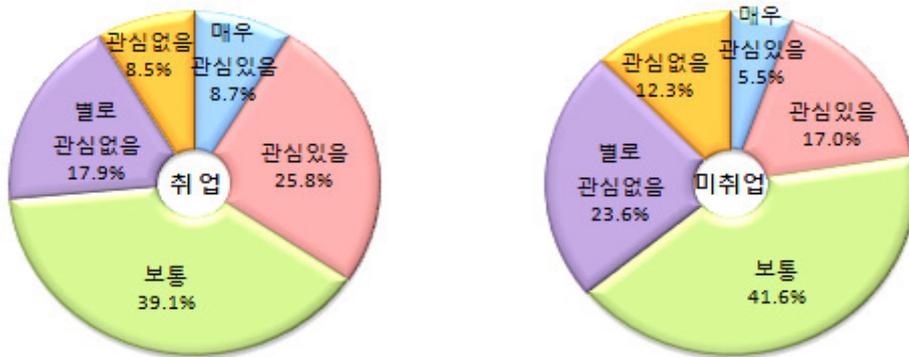
	계	매우만족	만족하는편	보통	불만족하는편	매우불만족
전 체	100.0	3.8	18.7	59.1	16.7	1.7
남 자	100.0	4.3	18.8	58.3	16.7	1.9
여 자	100.0	2.8	18.5	60.7	16.8	1.2
초 졸 이 하	100.0	3.8	9.1	62.7	23.2	1.2
중 졸	100.0	1.2	10.3	59.2	28.2	1.2
고 졸	100.0	2.6	13.6	63.6	17.7	2.5
대 졸 이 상	100.0	5.1	25.1	55.4	13.1	1.2
전 문 관 리	100.0	9.0	31.3	53.1	5.9	0.8
사 무	100.0	2.0	34.2	56.5	7.2	-
서 비 스 판 매	100.0	4.8	14.3	54.0	23.6	3.3
농 어 업	100.0	-	-	76.5	23.5	-
기 능 노 무	100.0	1.8	10.3	64.0	22.0	2.0

6 지역 부문

37. 시정 관심도

군산시민의 시정 관심도는 「보통」 40.3%, 「관심있음」 21.5%, 「별로 관심 없음」 20.7% 순으로 나타남

- 미취업인구보다 취업인구가, 그리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더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40대가 「매우 관심있음」 11.1%, 「관심있음」 25.3%로 응답하여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가 「관심없음」 19.1%, 「별로 관심없음」 30.5%로 가장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 시정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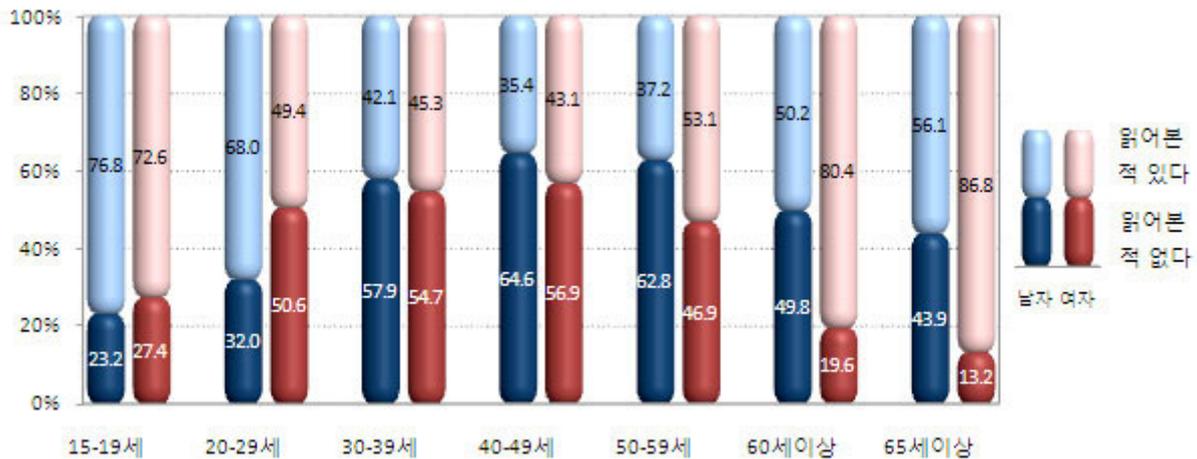
(단위 : %)

	계	매우 관심있음	관심있음	보통	별로 관심없음	관심없음
전 체	100.0	7.1	21.5	40.3	20.7	10.4
15 - 19 세	100.0	3.8	13.0	33.6	30.5	19.1
20 - 29 세	100.0	4.4	18.4	42.9	19.3	15.0
30 - 39 세	100.0	5.8	19.2	43.9	23.2	8.0
40 - 49 세	100.0	11.1	25.3	40.9	15.8	6.9
50 - 59 세	100.0	6.4	26.8	42.4	20.8	3.6
60 세 이상	100.0	8.6	21.9	35.2	20.1	14.2
65 세 이상	100.0	6.9	22.0	32.8	21.6	16.7
초 졸 이 하	100.0	3.5	17.9	36.8	23.1	18.7
중 졸	100.0	5.6	19.6	41.3	24.9	8.6
고 졸	100.0	5.9	20.8	40.7	22.2	10.3
대 졸 이 상	100.0	10.6	24.6	41.3	16.4	7.1
취 업	100.0	8.7	25.8	39.1	17.9	8.5
미 취 업	100.0	5.5	17.0	41.6	23.6	12.3

38. 시정 소식지

군산시가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열린군산’ 을 「읽어본 적 있다」 47.1%

- 연령대별·성별로 보면 40대 남자의 64.6%가 「읽어본 적 있다」고 응답, 65세이상 여자의 86.8%가 「읽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대졸이상 인구의 59.5%는 시정소식지를 「읽어본 적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읽어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3] 시정 소식지

(단위 : %)

	계	읽어본적있다	읽어본적없다
전 체	100.0	47.1	52.9
초 졸 이 하	100.0	20.1	79.9
중 졸	100.0	45.8	54.2
고 졸	100.0	48.1	51.9
대 졸 이 상	100.0	59.5	40.5
15-19세*남자	100.0	23.2	76.8
15-19세*여자	100.0	27.4	72.6
20-29세*남자	100.0	32.0	68.0
20-29세*여자	100.0	50.6	49.4
30-39세*남자	100.0	57.9	42.1
30-39세*여자	100.0	54.7	45.3
40-49세*남자	100.0	64.6	35.4
40-49세*여자	100.0	56.9	43.1
50-59세*남자	100.0	62.8	37.2
50-59세*여자	100.0	46.9	53.1
60세이상*남자	100.0	49.8	50.2
60세이상*여자	100.0	19.6	80.4
65세이상*남자	100.0	43.9	56.1
65세이상*여자	100.0	13.2	86.8

39. 지역문화행사 참여도

1년간 군산시 문화행사에 참여한 군산시민은 69.9%

- 많이 참여한 문화행사는 「벚꽃예술제」 77.2%, 「수산물축제」 37.9%, 「군산국제 자동차엑스포」 34.6%, 「군산세계철새축제」 26.8%, 「콩당보리축제」 14.6%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50대의 문화행사 참여도가 각각 74.1%, 75.3%, 76.8%, 76.3%로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4] 지역문화행사 참여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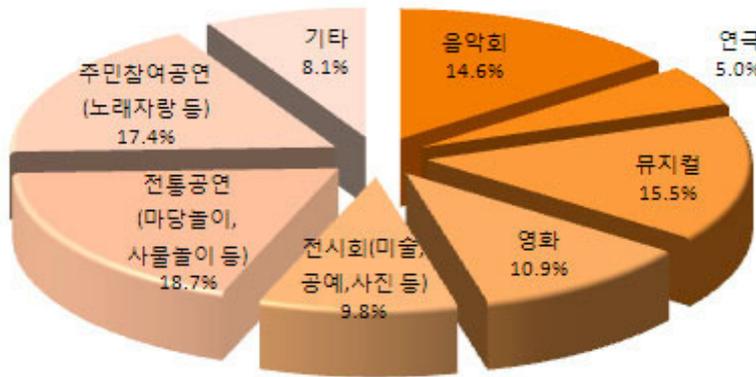
(단위 : %)

	계	참여 경험 있음	소계	새만금 전국 마라톤 대회	벚꽃 예술제	시립합창단, 교향악 단공연	군산 국제 자동차 엑스포	군산 새만금 에어쇼	군산 세계철새 축제	해남이, 해맞이 축제	수산물 축제	콩당 보리 축제	참여 경험 없음
전체	100.0	69.9	100.0	14.4	77.2	11.0	34.6	14.4	26.8	9.5	37.9	14.6	30.1
15-19세	100.0	66.4	100.0	17.2	70.1	8.0	19.5	5.8	19.5	6.9	17.2	8.0	33.6
20-29세	100.0	74.1	100.0	9.0	74.9	9.8	37.3	10.3	18.7	7.1	36.6	8.8	25.9
30-39세	100.0	75.3	100.0	12.5	78.0	14.1	47.2	22.4	34.3	11.0	37.8	19.7	24.7
40-49세	100.0	76.8	100.0	19.9	73.7	14.7	37.0	17.8	28.5	13.0	45.5	19.0	23.2
50-59세	100.0	76.3	100.0	16.7	78.1	9.4	30.7	12.4	27.8	9.1	44.0	14.2	23.7
60세 이상	100.0	51.0	100.0	11.4	86.6	5.9	21.9	9.6	25.8	6.7	31.9	11.5	49.0
65세 이상	100.0	43.3	100.0	5.9	85.0	5.9	21.8	9.8	24.8	4.6	28.6	12.4	56.7
초저이	100.0	48.2	100.0	10.2	85.1	2.8	16.8	8.8	21.6	4.1	30.3	14.2	51.8
중저이	100.0	69.8	100.0	12.0	82.7	6.4	20.9	10.4	21.4	4.3	38.4	10.1	30.2
고저이	100.0	73.7	100.0	14.6	79.1	7.2	34.3	13.3	25.9	11.2	40.7	14.7	26.3
대저이	100.0	76.6	100.0	16.3	71.2	18.8	44.6	18.5	31.1	11.1	37.3	16.1	23.4

40. 희망하는 문화행사

군산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행사로 많이 희망하는 것은 「전통공연(마당놀이, 사물놀이 등)」 18.7%, 「주민참여공연(노래자랑 등)」 17.4%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뮤지컬」, 「영화」를 많이 희망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통공연(마당놀이, 사물놀이 등)」, 「주민참여공연(노래자랑 등)」을 많이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음악회」, 「연극」, 「뮤지컬」, 「전시회(미술, 공예, 사진 등)」을 많이 희망하고,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전통공연(마당놀이, 사물놀이 등)」, 「주민참여공연(노래자랑 등)」을 많이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남



[표 55] 희망하는 문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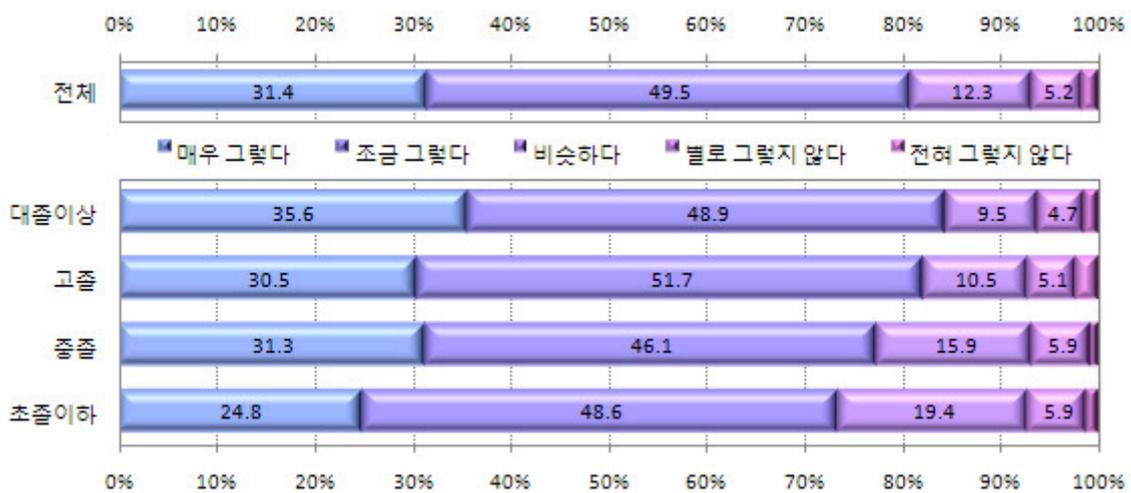
(단위 : %)

	계	음악회	연극	뮤지컬	영화	전시회 (미술, 공예, 사진 등)	전통공연 (마당놀이, 사물놀이 등)	주민참여 공연 (노래자랑 등)	기타
전 체	100.0	14.6	5.0	15.5	10.9	9.8	18.7	17.4	8.1
남 자	100.0	15.4	5.6	13.7	13.5	10.0	19.1	15.1	7.5
여 자	100.0	13.8	4.4	17.3	8.2	9.6	18.2	19.7	8.8
15 - 19 세	100.0	19.9	3.8	27.5	29.0	9.9	3.8	4.6	1.5
20 - 29 세	100.0	15.5	11.5	30.1	19.1	12.3	3.3	6.2	1.8
30 - 39 세	100.0	21.1	6.1	21.0	14.9	14.6	11.8	5.8	4.6
40 - 49 세	100.0	20.1	6.0	13.5	9.0	9.6	16.3	19.3	6.2
50 - 59 세	100.0	8.3	2.0	7.0	3.0	8.7	35.9	25.9	9.2
60 세 이 상	100.0	4.7	0.3	1.7	1.0	4.1	32.9	34.7	20.6
65 세 이 상	100.0	4.9	0.2	1.5	0.6	3.6	31.0	33.3	25.0
초 졸 이 하	100.0	2.3	-	0.9	0.8	1.7	36.2	35.0	23.1
중 졸	100.0	8.1	1.0	7.8	6.2	6.0	25.4	31.9	13.6
고 졸	100.0	16.4	4.7	15.1	14.6	10.4	17.0	17.0	4.9
대 졸 이 상	100.0	20.8	9.2	25.6	13.5	14.5	9.6	4.4	2.4

41. 새만금으로 인한 경제 발전 기대감

새만금 개발로 인한 경제 발전 기대감은 「조금 그렇다」 49.5%

- 「매우 그렇다」 고 가장 많이 응답한 연령대는 '50대', 38.5%로 새만금 개발로 인한 경제 발전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고 가장 많이 응답한 연령대는 '20대', 4.6%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새만금으로 인한 경제 발전 기대감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표 56] 새만금으로 인한 경제 발전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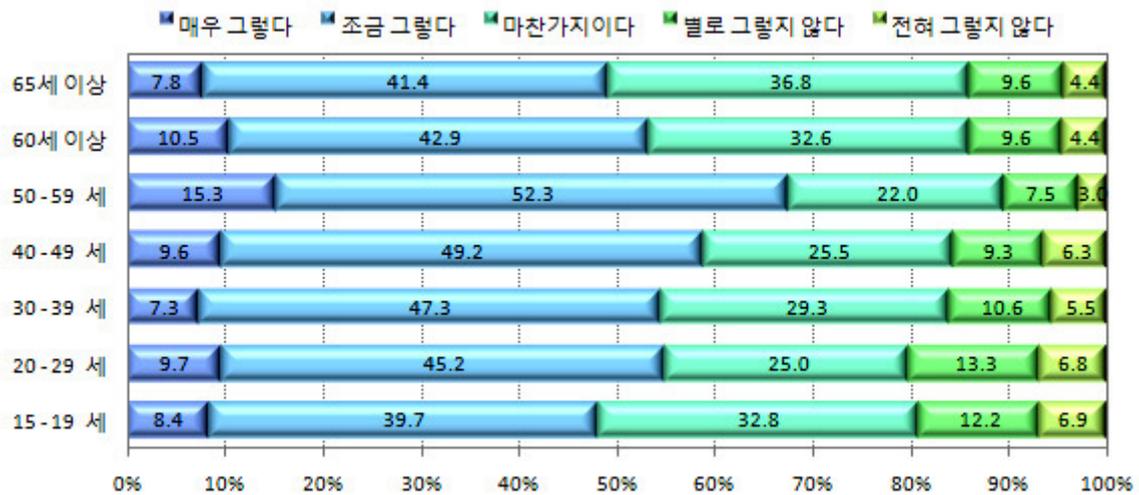
(단위 : %)

	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비슷하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31.4	49.5	12.3	5.2	1.6
남자	100.0	33.4	48.5	10.7	5.6	1.8
여자	100.0	29.4	50.5	13.9	4.8	1.4
15 - 19세	100.0	26.7	46.6	17.6	5.3	3.8
20 - 29세	100.0	29.1	46.7	14.1	5.4	4.6
30 - 39세	100.0	30.3	55.8	8.7	5.0	0.3
40 - 49세	100.0	32.0	50.8	11.4	5.0	0.8
50 - 59세	100.0	38.5	44.7	10.4	5.9	0.5
60세 이상	100.0	30.1	49.3	14.7	4.7	1.2
65세 이상	100.0	26.4	50.9	16.8	4.5	1.4
초졸이하	100.0	24.8	48.6	19.4	5.9	1.2
중졸	100.0	31.3	46.1	15.9	5.9	0.8
고졸	100.0	30.5	51.7	10.5	5.1	2.2
대졸이상	100.0	35.6	48.9	9.5	4.7	1.4
취업	100.0	33.8	49.8	10.4	5.0	0.9
미취업	100.0	28.9	49.2	14.3	5.4	2.3

42.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

차량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과는 「조금 그렇다」 46.6%, 「마찬가지이다」 27.6% 순으로 나타남

- 차량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에 대해, 모든 연령대에서 「조금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매우 그렇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연령대는 '50대'로 15.3%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연령대는 '10대'로 6.9%를 차지함



[표 57]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

(단위 : %)

	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마찬가지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100.0	10.1	46.6	27.6	10.2	5.4
남 자	100.0	10.7	46.2	27.1	9.6	6.5
여 자	100.0	9.6	47.1	28.2	10.9	4.3
15-19 세	100.0	8.4	39.7	32.8	12.2	6.9
20-29 세	100.0	9.7	45.2	25.0	13.3	6.8
30-39 세	100.0	7.3	47.3	29.3	10.6	5.5
40-49 세	100.0	9.6	49.2	25.5	9.3	6.3
50-59 세	100.0	15.3	52.3	22.0	7.5	3.0
60세 이상	100.0	10.5	42.9	32.6	9.6	4.4
65세 이상	100.0	7.8	41.4	36.8	9.6	4.4
초 졸 이 하	100.0	10.7	40.3	35.9	9.7	3.3
중 졸	100.0	11.1	48.3	24.9	9.5	6.2
고 졸	100.0	8.7	47.6	26.2	11.4	6.2
대 졸 이 상	100.0	11.0	48.1	26.0	9.5	5.3
취 업	100.0	11.6	46.3	27.1	9.5	5.5
미 취 업	100.0	8.6	47.0	28.2	10.9	5.3

43. 전통시장 구입품목

전통시장 쇼핑 여건이 개선된다면 구입하고 싶은 물건은 「야채류」 51.7%

- 전통시장에서 구입하고 싶은 물건은 「야채류」 외에 「생선」 37.3%, 「과일」 33.0%, 「식료품」 27.4%, 「육류」 16.2% 순으로, 주로 먹거리를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혼인 경우 먹거리나 생필품 외에도 「잡화」, 「기성복」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25.4%, 10.8%를 차지함



[표 58] 전통시장 구입품목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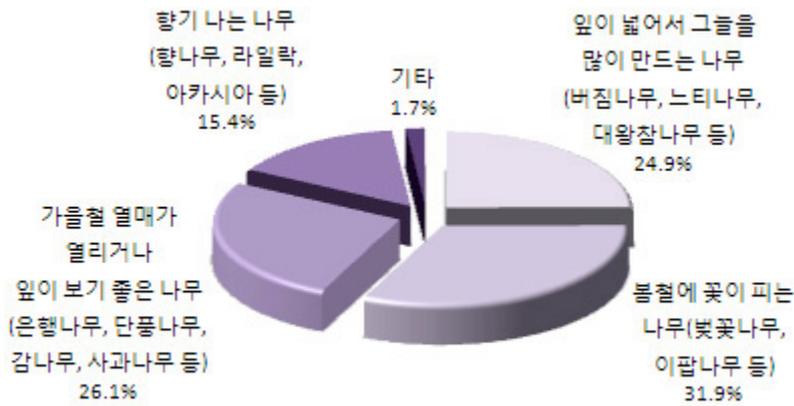
(단위 : %)

	계	야채류	과일	육류	생선	식료품	한약재	기성복	한복	침구류 및 직물용품	잡화	떡, 기름 등	기타
전 체	100.0	51.7	33.0	16.2	37.3	27.4	11.1	7.4	1.7	5.4	16.1	6.9	4.9
남 자	100.0	48.5	32.3	17.0	33.6	28.1	11.8	9.0	1.2	4.8	17.5	5.6	5.5
여 자	100.0	54.9	33.6	15.3	41.0	26.7	10.4	5.9	2.2	6.0	14.7	8.2	4.3
15 - 19 세	100.0	29.0	40.5	19.1	12.2	17.5	9.9	11.5	1.5	9.9	34.3	9.2	10.7
20 - 29 세	100.0	49.9	41.2	13.3	25.6	30.1	5.9	11.7	3.5	6.0	20.4	5.6	2.6
30 - 39 세	100.0	60.6	41.9	15.9	36.0	30.0	9.9	6.8	0.8	5.0	11.7	9.1	2.8
40 - 49 세	100.0	55.4	31.2	14.8	46.7	28.6	15.0	5.1	1.9	6.9	14.2	7.6	3.3
50 - 59 세	100.0	56.5	30.9	17.2	46.6	27.2	13.8	6.6	1.1	4.9	11.1	5.6	4.2
60 세 이 상	100.0	45.9	17.7	18.2	41.6	25.4	11.3	5.9	1.3	2.3	15.6	5.0	8.9
65 세 이 상	100.0	44.8	14.9	16.5	37.9	25.4	12.3	6.1	1.6	2.8	14.8	4.1	10.2
미 혼	100.0	39.7	37.9	14.6	22.4	24.7	7.9	10.8	2.9	6.7	25.4	7.4	7.4
배 우 자 있 음	100.0	57.7	32.9	16.9	43.1	28.7	12.7	6.2	1.2	5.2	13.0	6.4	2.8
사 별	100.0	43.4	21.9	15.9	39.8	24.9	10.0	7.3	2.2	2.3	10.6	7.4	12.4
이 혼	100.0	55.7	21.8	14.4	39.3	30.3	10.2	3.3	-	7.2	17.6	11.8	7.4

44. 대표 가로수 수종

군산시의 대표적인 가로수 수종으로 적합한 것은 「봄철에 꽃이 피는 나무」 31.9%

- 대표적인 가로수 수종으로 「봄철에 꽃이 피는 나무」 외에는 은행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등의 「가을철 열매가 열리거나 잎이 보기 좋은 나무」 26.1%, 버짐나무,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등의 「잎이 넓어서 그늘을 많이 만드는 나무」 24.9%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기나는 나무」를 많이 응답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봄철에 꽃이 피는 나무」를 많이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남



[표 59] 대표 가로수 수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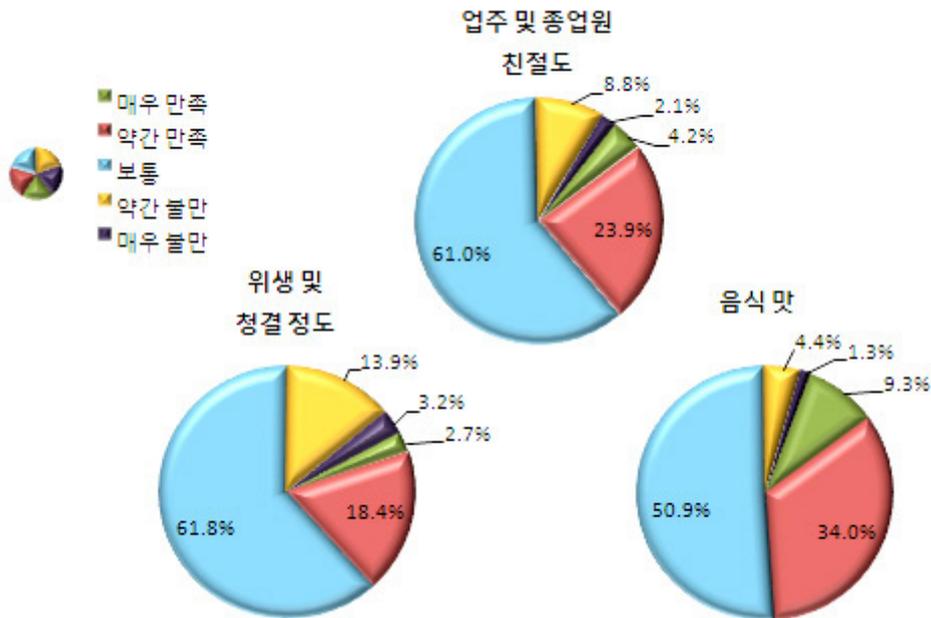
(단위 : %)

	계	잎이 넓어서 그늘을 많이 만드는 나무	봄철에 꽃이 피는 나무	가을철 열매가 열리거나 잎이 보기 좋은 나무	향기나는 나무	기타
전 체	100.0	24.9	31.9	26.1	15.4	1.7
남 자	100.0	27.8	29.4	28.3	13.1	1.4
여 자	100.0	21.9	34.5	23.9	17.8	2.0
15 - 19 세	100.0	26.7	24.4	15.3	33.6	-
20 - 29 세	100.0	28.1	27.8	18.3	25.3	0.5
30 - 39 세	100.0	33.4	27.6	21.7	15.5	1.7
40 - 49 세	100.0	23.9	32.5	28.8	13.5	1.4
50 - 59 세	100.0	24.2	31.8	34.8	8.4	0.8
60 세 이상	100.0	14.5	42.1	31.9	7.2	4.2
65 세 이상	100.0	13.6	44.2	29.8	7.3	5.0
초 졸 이 하	100.0	11.8	44.1	31.0	8.2	4.9
중 졸	100.0	26.6	34.2	27.7	10.1	1.4
고 졸	100.0	24.6	32.8	23.3	18.4	0.9
대 졸 이 상	100.0	30.9	24.3	26.1	17.7	1.0

45. 음식서비스 만족도

군산시 식당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업주 및 종업원 친절도’ 부문에서 28.1%, ‘위생 및 청결 정도’ 21.1%, ‘음식 맛’ 43.3%로 「만족하는 편(매우만족+약간 만족)」이 나타나 ‘음식 맛’ 부문이 타 부문보다 높았음

- 군산시 식당 서비스에 관한 부문 중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부문은 ‘음식 맛’ 9.3%, 「약간 만족」이라는 응답도 34.0%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군산시 식당 서비스에 관한 부문 중 「매우 불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부문은 ‘위생 및 청결 정도’ 3.2%, 「약간 불만」이라는 응답도 13.9%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60] 음식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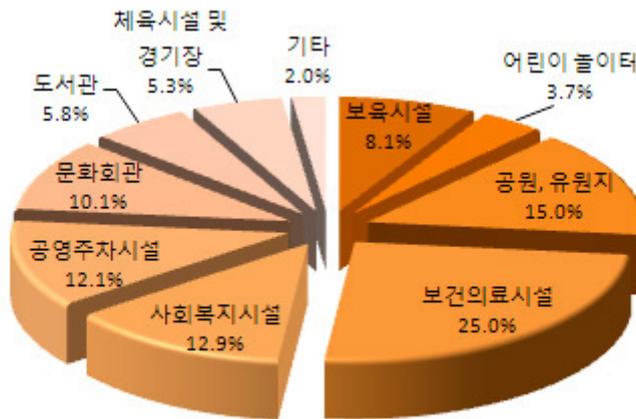
(단위 : %)

			소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업주 및 종업원 친절도	전	체	100.0	4.2	23.9	61.0	8.8	2.1
	남	자	100.0	3.9	24.9	59.9	9.2	2.0
	여	자	100.0	4.5	22.9	62.1	8.4	2.2
위생 및 청결 정도	전	체	100.0	2.7	18.4	61.8	13.9	3.2
	남	자	100.0	2.6	19.9	60.2	13.8	3.4
	여	자	100.0	2.8	16.9	63.4	14.0	2.9
음식 맛	전	체	100.0	9.3	34.0	50.9	4.4	1.3
	남	자	100.0	9.9	33.4	50.2	4.9	1.7
	여	자	100.0	8.8	34.7	51.6	3.9	0.9

46.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향후 주로 군산시에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 시설(공공병원, 보건소 등)」 25.0%, 그 다음은 「공원, 유원지」 15.0%

-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공원, 유원지」, 「문화회관(공연장 등)」, 「도서관」을 응답한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보건의료시설(공공병원, 보건소 등)」,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등)」을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보육시설(어린이집, 보육원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0,30대에서 각각 16.6%, 11.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61]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 주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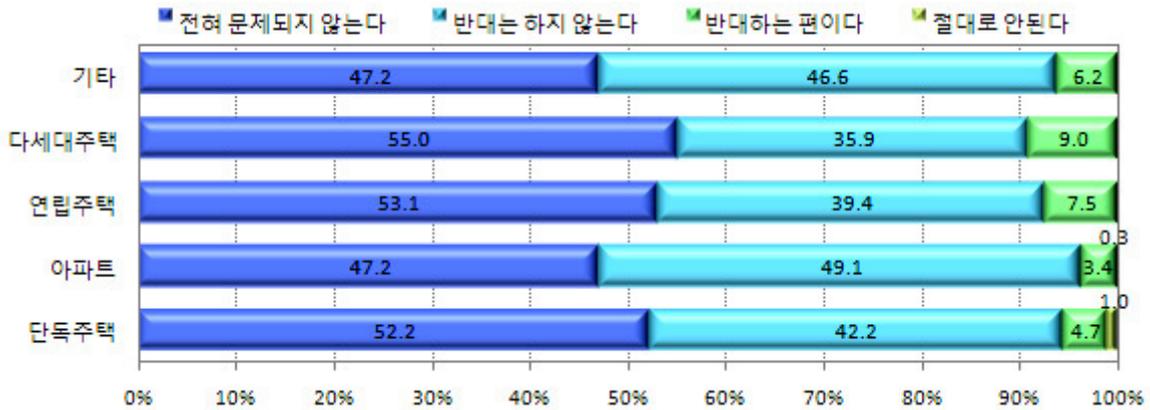
(단위 : %)

	계	보육 시설	어린이 놀이터	공원, 유원지	보건 의료 시설	사회 복지 시설	공영 주차 시설	문화 회관	도서관	체육 시설 및 경기장	기타
전 체	100.0	8.1	3.7	15.0	25.0	12.9	12.1	10.1	5.8	5.3	2.0
남 자	100.0	8.5	2.7	15.0	22.9	11.8	14.5	10.4	5.2	7.6	1.3
여 자	100.0	7.6	4.7	15.0	27.0	14.0	9.6	9.8	6.5	3.0	2.7
15 - 19 세	100.0	4.6	2.3	22.9	7.6	4.6	2.3	26.7	20.6	7.7	0.8
20 - 29 세	100.0	16.6	5.5	18.6	10.7	5.2	8.1	19.2	7.4	7.8	0.7
30 - 39 세	100.0	11.8	7.2	22.3	15.2	5.1	12.2	12.3	7.5	5.6	0.8
40 - 49 세	100.0	5.9	3.8	15.1	23.7	12.9	18.9	5.5	6.1	6.8	1.3
50 - 59 세	100.0	6.1	1.5	10.6	36.2	17.4	17.6	5.2	1.0	2.5	2.1
60 세 이상	100.0	2.3	0.8	5.0	45.8	26.8	8.2	2.1	0.7	2.8	5.4
65 세 이상	100.0	2.2	0.6	3.0	45.5	30.7	6.4	1.8	0.7	2.3	7.0
초 졸 이 하	100.0	2.3	1.4	4.9	46.9	27.8	6.4	1.8	0.4	1.1	7.0
중 졸	100.0	6.0	3.2	8.6	36.5	17.9	12.7	5.4	2.4	4.5	2.8
고 졸	100.0	8.1	4.4	18.1	19.8	9.0	14.1	11.6	6.8	6.9	1.2
대 졸 이 상	100.0	11.6	4.2	18.9	15.7	8.0	12.6	14.2	8.7	6.0	0.3

47. 장애인, 노인 관련 시설

집 근처에 장애인 또는 노인 관련 시설(생활시설, 재활시설 등)이 설립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49.8%

- 아파트, 기타 형태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모두 47.2%로, 다른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다소 적은 편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반대하는 편이다」, 「절대로 안된다」는 응답이 많은 경향이 나타남



[표 62] 장애인, 노인 관련 시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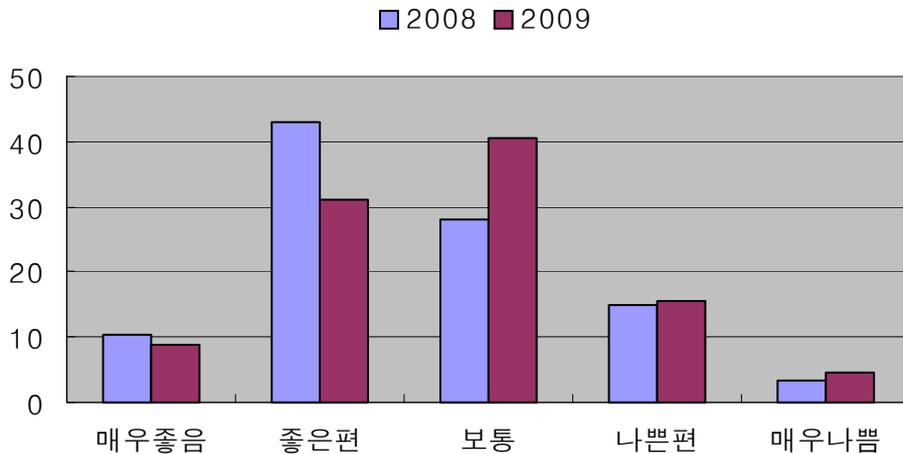
	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반대는 하지 않는다	반대하는 편이다	절대로 안된다
전 체	100.0	49.8	45.3	4.3	0.6
15 - 19 세	100.0	45.0	47.3	6.1	1.5
20 - 29 세	100.0	51.2	42.7	4.4	1.7
30 - 39 세	100.0	42.6	52.7	4.7	-
40 - 49 세	100.0	44.3	49.9	5.0	0.8
50 - 59 세	100.0	52.6	44.0	3.4	-
60 세 이상	100.0	61.0	36.1	2.9	-
65 세 이상	100.0	64.9	32.1	3.0	-
초졸 이하	100.0	59.2	37.2	3.3	0.3
중졸	100.0	50.3	44.7	4.5	0.4
고졸	100.0	46.8	48.0	4.6	0.6
대졸 이상	100.0	48.3	46.7	4.3	0.7
단독주택	100.0	52.2	42.2	4.7	1.0
아파트	100.0	47.2	49.1	3.4	0.3
연립주택	100.0	53.1	39.4	7.5	-
다세대주택	100.0	55.0	35.9	9.0	-
기타	100.0	47.2	46.6	6.2	-

7 삶의 질 만족도 부문

48. 주관적 건강평가

군산시민의 39.7%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좋음」, 19.9%는 「나쁨」으로 응답

-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매우 좋음」과 「좋은 편이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나쁨」이 1.4%p 증가하였으며, 「좋음」이라는 응답률은 13.8%p 감소하였으며, 30-39세의 20.9%, 15-19세의 19.8%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이 감소하여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음



[표 63] 주관적 건강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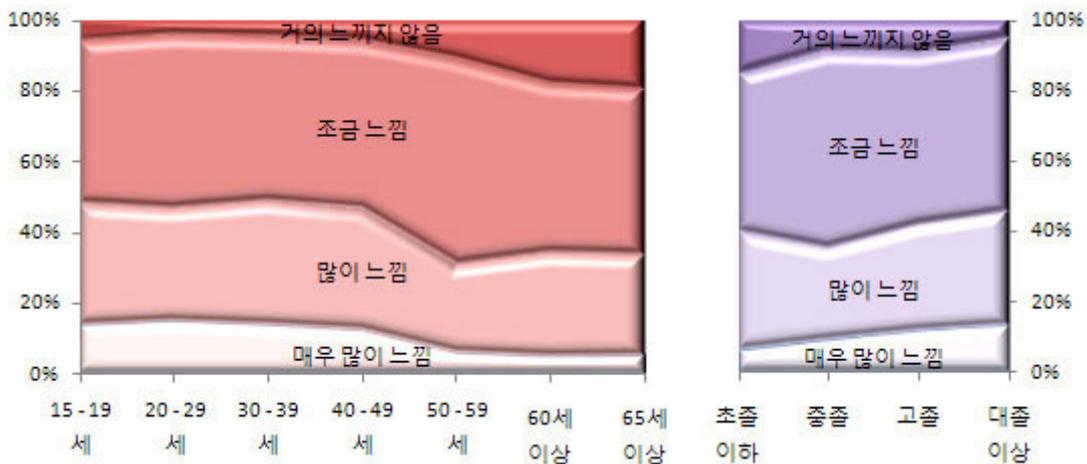
	2009년						2008년					
	계	매우 좋음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매우 나쁨	계	매우 좋음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매우 나쁨
전 체	100.0	8.7	31.0	40.4	15.4	4.5	100.0	10.4	43.1	28.0	15.0	3.5
남 자	100.0	10.8	35.2	38.5	12.0	3.5	100.0	12.3	46.4	27.3	10.8	3.0
여 자	100.0	6.5	26.8	42.4	18.8	5.5	100.0	8.5	39.6	28.7	19.4	3.9
15-19세	100.0	21.4	43.5	31.3	3.8	-	100.0	22.8	61.9	12.4	2.9	0.0
20-29세	100.0	17.4	47.7	31.0	3.3	0.6	100.0	21.6	56.6	19.9	1.5	0.3
30-39세	100.0	8.9	33.4	51.5	5.4	0.8	100.0	10.0	53.2	29.6	6.3	0.8
40-49세	100.0	5.7	34.7	46.0	11.7	1.9	100.0	7.3	44.6	36.2	10.0	1.8
50-59세	100.0	5.7	25.6	46.3	19.5	3.0	100.0	5.9	36.8	34.7	18.5	4.1
60세 이상	100.0	1.3	10.6	30.9	40.3	16.9	100.0	2.7	17.0	26.1	42.6	11.5
초졸 이하	100.0	0.6	10.3	29.1	41.6	18.4	100.0	2.2	10.8	28.9	44.3	13.7
중졸	100.0	5.2	21.5	46.0	24.0	3.3	100.0	7.8	35.0	32.8	20.4	4.0
고졸	100.0	10.3	32.3	45.2	10.2	1.9	100.0	10.6	50.3	27.5	10.0	1.6
대졸 이상	100.0	12.0	43.0	39.0	5.1	0.9	100.0	15.0	52.9	26.7	5.0	0.4

2008, 2009년 비교자료

49. 스트레스 인식 정도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인식 정도는 「조금 느낌」 49.0%

-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나타남
- 미취업자보다 취업자의 경우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 「매우 많이 느낌」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직종은 ‘사무직’ 18.1%, ‘전문관리직’ 15.5% 순으로 나타남



[표 64] 스트레스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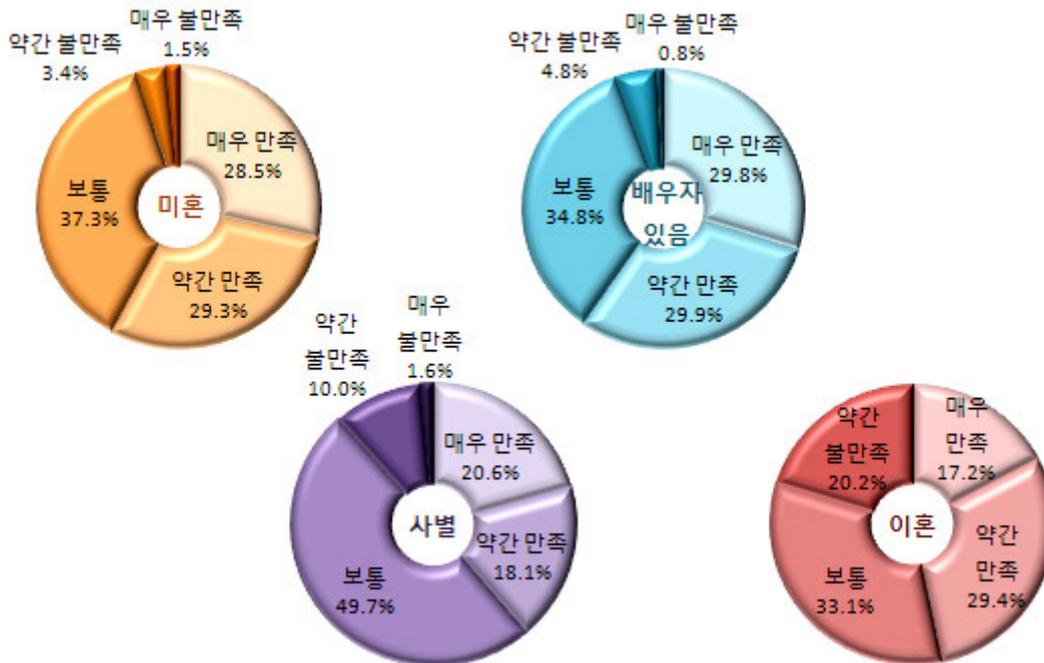
(단위 : %)

	계	매우 많이 느낌	많이 느낌	조금 느낌	거의 느끼지 않음
전 체	100.0	10.7	31.5	49.0	8.8
15 - 19 세	100.0	13.7	34.4	45.8	6.1
20 - 29 세	100.0	14.9	31.7	48.9	4.4
30 - 39 세	100.0	13.9	34.9	46.2	5.0
40 - 49 세	100.0	12.4	34.1	47.3	6.1
50 - 59 세	100.0	6.1	24.9	57.9	11.1
60 세 이상	100.0	5.0	29.3	47.7	18.0
65 세 이상	100.0	5.3	28.3	46.9	19.6
초 졸 이 하	100.0	5.9	34.2	44.7	15.2
중 졸	100.0	8.9	26.5	56.0	8.6
고 졸	100.0	11.4	30.6	48.7	9.2
대 졸 이 상	100.0	13.0	32.7	48.9	5.3
취 업	100.0	11.6	33.3	47.4	7.7
미 취 업	100.0	9.9	29.5	50.7	9.9
전 문 관 리	100.0	15.5	33.1	45.1	6.3
사 무	100.0	18.1	31.5	42.8	7.6
서 비 스 판 매	100.0	11.6	32.1	50.6	5.6
농 어 업	100.0	1.4	21.9	59.8	16.9
기 능 노 무	100.0	10.0	37.3	44.9	7.7

50. 가족관계 만족도

군산시민의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93.7%로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 보면, 「불만족」하는 비율이 ‘이혼’한 경우가 2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사별’, ‘배우자 있음’, ‘미혼’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주관적 만족감이 낮을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65]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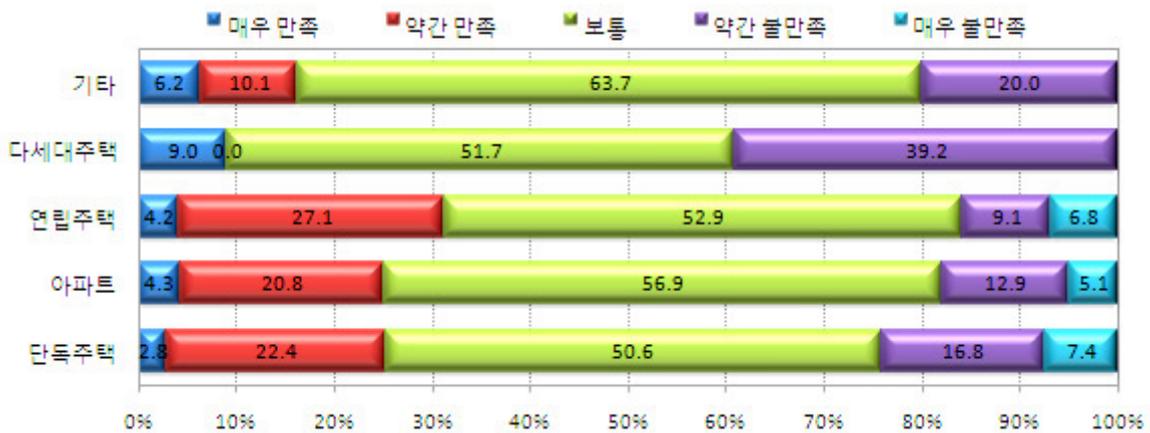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100.0	57.0	28.3	28.7	36.7	6.3	5.3	1.0
남 자	100.0	59.4	30.0	29.5	35.4	5.2	4.4	0.8
여 자	100.0	54.6	26.6	28.0	38.0	7.4	6.2	1.2
미 혼	100.0	57.8	28.5	29.3	37.3	4.9	3.4	1.5
배 우 자 있 음	100.0	59.6	29.8	29.9	34.8	5.6	4.8	0.8
사 별	100.0	38.7	20.6	18.1	49.7	11.6	10.0	1.6
이 혼	100.0	46.7	17.2	29.4	33.1	20.2	20.2	-
# 매우 만족	100.0	91.9	79.9	12.1	7.1	1.0	1.0	-
# 약간 만족	100.0	87.5	45.0	42.5	11.8	0.7	0.7	-
# 보 통	100.0	56.9	28.6	28.3	40.0	3.1	2.5	0.7
# 약간 불만족	100.0	44.6	16.6	28.0	45.3	10.2	9.3	0.8
# 매우 불만족	100.0	32.7	13.4	19.3	43.1	24.1	18.5	5.7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51.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대중교통시설 이용(버스, 택시 등의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53.8%

- 대중교통시설에 가장 「불만족」(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 하는 연령대는 ‘10대’인 것으로 나타남
- 주택형태별로 보면, 대중교통시설 이용에 가장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하는 거처는 ‘연립주택’으로 31.2%이며, 가장 「불만족」(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 하는 거처는 ‘다세대주택’으로 39.2%인 것으로 나타남



[표 66]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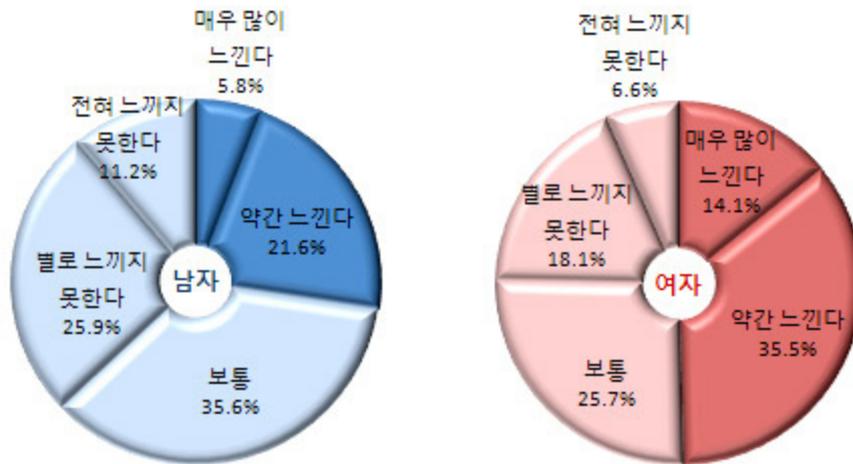
(단위 : %)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전체	100.0	25.2	3.7	21.6	53.8	20.9	14.8	6.2
15 - 19세	100.0	29.8	7.6	22.2	41.2	29.0	18.3	10.7
20 - 29세	100.0	25.2	3.2	22.0	52.0	22.8	14.7	8.1
30 - 39세	100.0	20.1	1.9	18.2	60.9	19.1	14.9	4.2
40 - 49세	100.0	25.2	4.4	20.8	53.8	21.0	14.9	6.1
50 - 59세	100.0	30.9	4.0	26.9	54.5	14.6	12.5	2.1
60세 이상	100.0	24.2	3.3	20.8	52.9	23.0	15.0	8.0
65세 이상	100.0	24.9	3.5	21.4	50.4	24.7	15.6	9.1
취업	100.0	25.4	3.3	22.0	55.2	19.4	14.1	5.3
미취업	100.0	25.1	4.0	21.1	52.4	22.5	15.5	7.0
단독주택	100.0	25.2	2.8	22.4	50.6	24.2	16.8	7.4
아파트	100.0	25.1	4.3	20.8	56.9	18.0	12.9	5.1
연립주택	100.0	31.2	4.2	27.1	52.9	15.9	9.1	6.8
다세대주택	100.0	9.0	9.0	-	51.7	39.2	39.2	-
기타	100.0	16.3	6.2	10.1	63.7	20.0	20.0	-

52. 범죄 피해 두려움

군산시민이 평소 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느낀다」(매우많이느낀다 +약간느낀다) 38.4%

- 여자의 경우 「매우 많이 느낀다」는 응답이 14.1%, 「약간 느낀다」는 응답이 35.5%로 「느낀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남자의 경우 「매우 많이 느낀다」는 5.8%, 「약간 느낀다」는 21.6%로 응답함
-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30대', 「느끼지 않는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연령대는 '65세이상'으로 나타남



[표 67] 범죄 피해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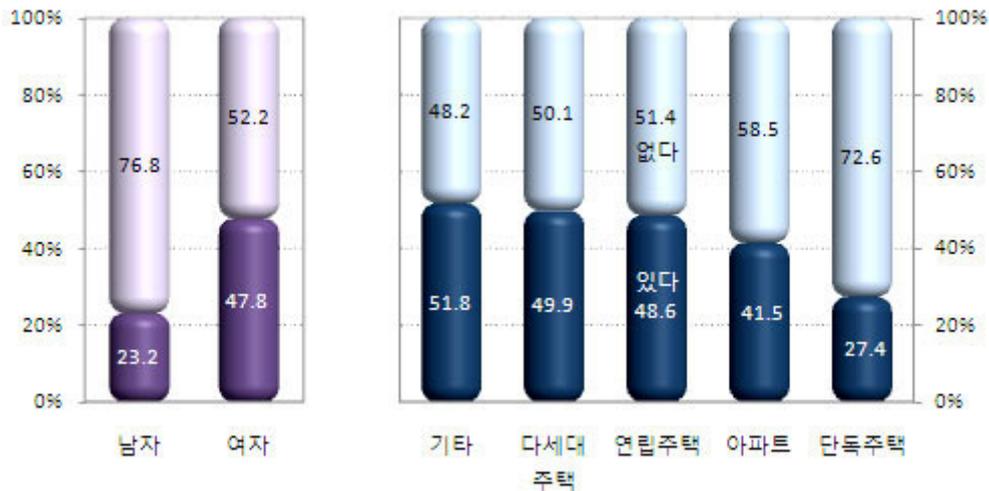
(단위 : %)

	계	느낀다			보통	느끼지 못한다		
		느낀다	매우 많이 느낀다	약간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	별로 느끼지 못한다	전혀 느끼지 못한다
전 체	100.0	38.4	9.9	28.5	30.7	30.9	22.0	8.9
남 자	100.0	27.4	5.8	21.6	35.6	37.0	25.9	11.2
여 자	100.0	49.6	14.1	35.5	25.7	24.7	18.1	6.6
15 - 19 세	100.0	45.7	11.4	34.3	27.5	26.7	22.1	4.6
20 - 29 세	100.0	38.2	13.3	24.9	36.4	25.5	17.8	7.7
30 - 39 세	100.0	47.7	12.5	35.2	29.0	23.3	16.8	6.6
40 - 49 세	100.0	40.3	7.6	32.7	30.8	28.9	21.9	7.0
50 - 59 세	100.0	34.9	7.7	27.2	33.7	31.4	23.9	7.5
60 세 이상	100.0	27.5	8.1	19.5	26.4	46.1	29.3	16.9
65 세 이상	100.0	25.7	8.0	17.7	24.8	49.5	30.3	19.2
미 혼	100.0	35.4	10.3	25.1	34.9	29.6	20.0	9.6
배 우 자 있음	100.0	40.9	9.9	31.0	29.4	29.7	22.1	7.5
사 별	100.0	32.6	8.9	23.6	25.8	41.6	25.6	16.0
이 혼	100.0	27.9	8.9	19.0	34.3	37.9	27.3	10.6

53. 야간보행 두려움

집 근처에 야간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다」 35.4%

- 여자의 경우 47.8%가 집 근처 야간 보행에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 남자의 경우는 23.2%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거주종류별로 보면, 집 근처 야간 보행에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순으로 나타남



[표 68] 야간보행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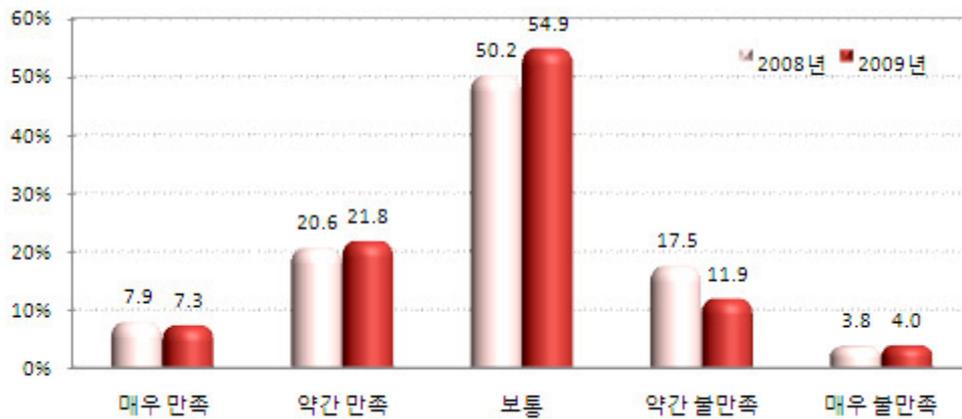
(단위 : %)

	계	있다	없다
전 체	100.0	35.4	64.6
남 자	100.0	23.2	76.8
여 자	100.0	47.8	52.2
15 - 19 세	100.0	46.5	53.5
20 - 29 세	100.0	40.6	59.4
30 - 39 세	100.0	48.8	51.2
40 - 49 세	100.0	37.3	62.7
50 - 59 세	100.0	26.2	73.8
60 세 이상	100.0	18.9	81.1
65 세 이상	100.0	17.7	82.3
미 혼	100.0	37.7	62.3
배우자 있음	100.0	36.1	63.9
사 별	100.0	24.8	75.2
이 혼	100.0	31.2	68.8
단 독 주 택	100.0	27.4	72.6
아 파 트	100.0	41.5	58.5
연 립 주 택	100.0	48.6	51.4
다 세 대 주 택	100.0	49.9	50.1
기 타	100.0	51.8	48.2

54. 거주환경 만족도

군산시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29.1%, 「불만족」 15.9%으로 나타남

- 군산시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08년에 비해 「보통」이 4.7%p, 「약간 만족」이 1.2%p, 「매우 불만족」이 0.2%p 증가하였으며, 「매우 만족」은 0.6%p, 「약간 불만족」은 5.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군산시 거주환경에 「만족」(매우만족+약간만족) 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불만족」(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9] 거주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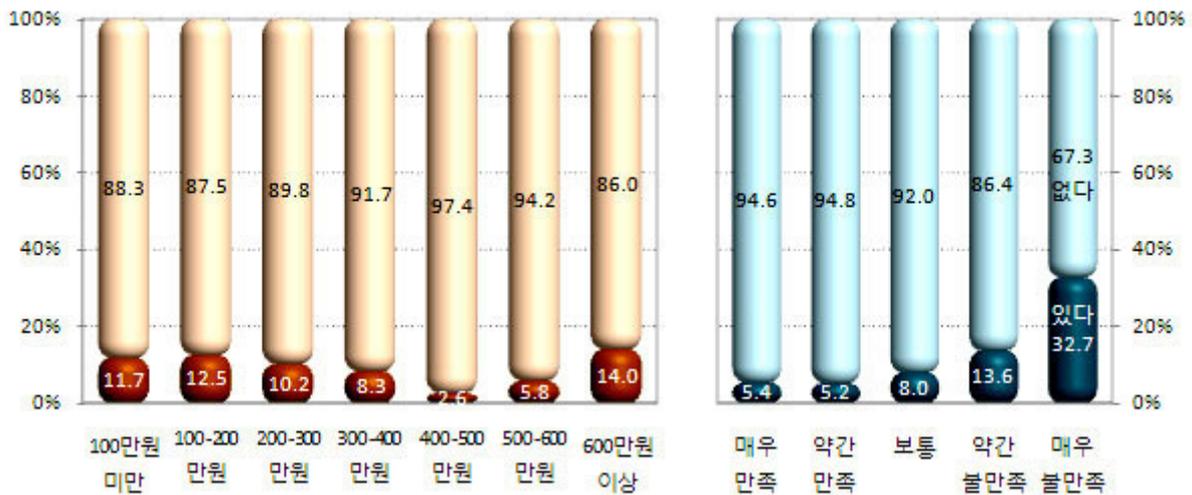
(단위 : %)

	2009년						2008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100.0	7.3	21.8	54.9	11.9	4.0	100.0	7.9	20.6	50.2	17.5	3.8
남 자	100.0	6.6	23.2	55.8	9.8	4.6	100.0	8.0	20.9	50.7	16.8	3.6
여 자	100.0	8.1	20.4	54.0	14.2	3.3	100.0	7.8	20.4	49.7	18.1	4.0
15 - 19 세	100.0	6.9	19.9	53.4	15.2	4.6	100.0	3.8	18.9	50.8	25.0	1.5
20 - 29 세	100.0	5.3	18.5	61.5	11.2	3.5	100.0	6.6	18.4	50.8	20.1	4.1
30 - 39 세	100.0	5.4	18.9	55.4	15.3	5.0	100.0	4.2	18.8	55.2	17.3	4.5
40 - 49 세	100.0	7.7	22.2	54.3	10.5	5.3	100.0	9.5	23.0	44.7	19.3	3.5
50 - 59 세	100.0	6.2	23.9	55.0	11.9	3.0	100.0	9.8	18.9	46.0	21.3	4.0
60 세 이상	100.0	11.6	26.4	50.2	9.4	2.5	100.0	9.9	22.6	52.3	11.4	3.8
초 졸 이 하	100.0	10.3	21.3	54.4	10.7	3.3	100.0	8.4	21.3	52.7	12.5	5.1
중 졸	100.0	5.8	24.0	56.9	10.7	2.6	100.0	10.9	25.8	46.4	14.1	2.8
고 졸	100.0	6.6	23.6	53.1	11.9	4.9	100.0	7.5	20.5	49.0	19.6	3.4
대 졸 이 상	100.0	7.2	19.5	56.4	13.1	3.8	100.0	6.9	18.3	51.1	20.2	3.5

55. 자살충동 경험 여부

1년간 자살 충동 경험 여부는 「없다」 89.0%, 「있다」 11.0%

-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15.4%, ‘30대’ 13.3%, ‘10대’ 13.0% 순으로 자살 충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만족감이 높을수록 자살 충동 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표 70] 자살충동 경험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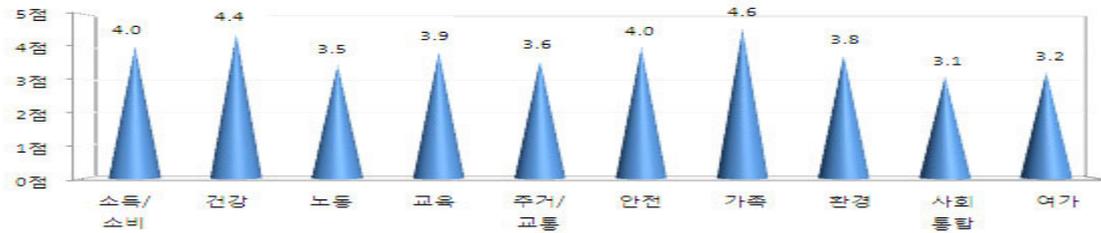
	계	있다	없다
전 체	100.0	11.0	89.0
15 - 19 세	100.0	13.0	87.0
20 - 29 세	100.0	9.5	90.5
30 - 39 세	100.0	13.3	86.7
40 - 49 세	100.0	15.4	84.6
50 - 59 세	100.0	6.4	93.6
60 세 이상	100.0	8.7	91.3
65 세 이상	100.0	10.1	89.9
100만원미만	100.0	11.7	88.3
100-200만원	100.0	12.5	87.5
200-300만원	100.0	10.2	89.8
300-400만원	100.0	8.3	91.7
400-500만원	100.0	2.6	97.4
500-600만원	100.0	5.8	94.2
600만원 이상	100.0	14.0	86.0
# 매우 만족	100.0	5.4	94.6
# 약간 만족	100.0	5.2	94.8
# 보통	100.0	8.0	92.0
# 약간불만족	100.0	13.6	86.4
# 매우불만족	100.0	32.7	67.3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56. 삶의 질 중요도 평가

삶의 질에 대한 구성영역별 중요도 평가 결과 중 가장 높은 영역은 「가족」 4.6점

- 「가족」 외에 다른 영역별 결과를 보면, 「건강」 4.4점, 「소득/소비」 4.0점, 「안전」 4.0점, 「교육」 3.9점, 「환경」 3.8점 순으로 나타남
- 다른 직종에 비해 농어업직은 「여가」, 「주거/교통」, 「안전」, 「환경」의 중요도를 비교적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71] 삶의 질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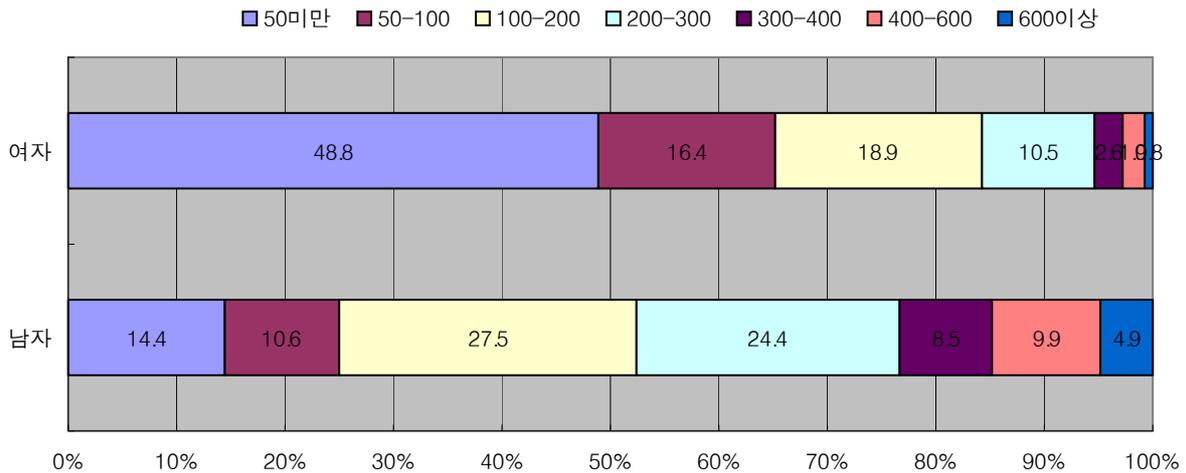
(단위 : 점)

	소득/소비	건강	노동	교육	주거/교통	안전	가족	환경	사회통합	여가
전 체	4.0	4.4	3.5	3.9	3.6	4.0	4.6	3.8	3.1	3.2
15-19세	3.9	4.5	3.2	4.1	3.6	4.2	4.7	3.9	3.2	3.6
20-29세	4.0	4.5	3.6	4.0	3.7	4.1	4.7	3.9	3.2	3.5
30-39세	4.3	4.6	3.7	4.1	3.7	4.2	4.7	3.9	3.2	3.4
40-49세	4.1	4.4	3.6	4.0	3.7	4.0	4.6	3.8	3.2	3.3
50-59세	3.9	4.4	3.5	3.6	3.6	3.8	4.5	3.7	3.0	3.1
60세 이상	3.9	4.3	3.2	3.4	3.4	3.8	4.4	3.6	2.9	2.9
65세 이상	3.9	4.3	3.2	3.4	3.3	3.8	4.4	3.5	2.8	2.8
전문관리	4.2	4.6	3.7	4.2	3.9	4.3	4.7	4.0	3.4	3.7
사무	4.3	4.6	3.8	4.0	3.9	4.3	4.8	4.0	3.2	3.4
서비스판매	4.1	4.5	3.7	4.0	3.8	4.2	4.7	4.0	3.3	3.4
농어업	3.9	4.2	3.3	3.5	3.0	3.4	4.5	3.2	2.6	2.6
기능노무	4.2	4.4	3.7	3.9	3.7	4.1	4.6	3.8	3.1	3.3
100만원미만	3.9	4.3	3.3	3.6	3.4	3.8	4.4	3.6	2.9	3.0
100-200만원	4.1	4.4	3.6	3.9	3.7	4.1	4.6	3.8	3.1	3.3
200-300만원	4.2	4.6	3.6	4.0	3.7	4.0	4.7	3.8	3.2	3.3
300-400만원	4.2	4.5	3.6	4.1	3.9	4.2	4.8	4.0	3.3	3.5
400-500만원	4.4	4.7	3.7	4.1	4.0	4.4	4.7	4.0	3.1	3.3
500-600만원	4.4	4.5	3.6	4.2	3.7	4.3	4.7	4.0	3.2	3.5
600만원이상	4.0	4.4	3.7	4.2	4.1	4.5	4.9	4.3	3.8	4.0

57. 월평균 가구 소득(가구주)

군산시 가구주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300만원」이 46.8% 차지

-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50만원 미만 가구주가 9.9%증가, 200-400만원 미만 가구주가 7.6% 감소, 400만원 이상 가구주가 2.9% 증가



[표 72] 월평균 가구 소득(가구주)

(단위 : %)

	2009년							
	계	50 미만	50-100	100-200	200-300	300-400	400-600	600 이상
전 체	100.0	22.3	11.9	25.6	21.2	7.1	8.1	3.9
남 자	100.0	14.4	10.6	27.5	24.4	8.5	9.9	4.9
여 자	100.0	48.8	16.4	18.9	10.5	2.6	1.9	0.8
15-19세	-	-	-	-	-	-	-	-
20-29세	100.0	14.3	9.0	46.1	26.1	4.6	-	-
30-39세	100.0	4.1	8.2	33.2	27.0	12.4	9.2	5.8
40-49세	100.0	6.0	9.9	27.2	29.6	6.8	14.1	6.3
50-59세	100.0	13.7	15.4	26.2	22.6	7.9	10.1	4.1
60세 이상	100.0	57.0	14.3	13.5	7.5	4.0	2.4	1.3
초졸 이하	100.0	63.2	15.1	10.7	6.9	1.7	2.5	-
중졸	100.0	21.6	20.5	36.8	12.4	4.2	1.2	3.2
고졸	100.0	12.4	12.3	27.7	29.9	6.9	7.7	3.1
대졸 이상	100.0	7.0	5.6	27.7	25.1	12.1	14.9	7.6

